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 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 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 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제목

-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국민육성 및 기독교인재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 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를 정리하는 시대정신 중 다원주의(pluralism)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종교에 불가피한 영향을 주고 또한 변화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이고 타협적이며, 공생하기 위한 이 시대의 소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배타하여 그 정체성에 위협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군선교 현장은 한마디로 종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20세기의 군 현장은 기독교 독점 선교시대였으나 지금은 타 종교가 선교·포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독교의 활동을 완전 모방함으로써 업그레이드를 하여 군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국방개혁 2020에서 비롯된 병력개편, 부대 통·폐합 등으로 군 현장이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단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황금어장인 군 현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의 사명완수를 위해 나뭇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선교는 세계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군에서 세례받은 장병들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미약하다는 약점을 자각하며 이를 지혜롭게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군선교연합회가 세계 유일의 군선교신학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매년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군선교신학 논문을 공모하여, 논문집을 출간하는

등 군선교신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군선교사역의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며, 이를 발판으로 중장기적인 군선교의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여,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선교신학 논문집 8권 출간에 맞추어 개최하는 제10회 군선교 심포지엄은 “군선교사역의 성례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데, 본 논문집에는 군선교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성례식, 군선교사역의 성례전을 성경신학적 의미로 본 논문과 군선교 현장에서 성례식을 적용한 논문 등 군사역현장에서 성례전의 중요성을 성경적으로 진지하게 살펴본 논문을 포함하여 다자중심적 종교다원주의 속 군선교의 위치를 진지하게 살펴본 논문들이 실렸습니다. 또한 자살 생각을 가진 병사들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과 기쁨과 행복한 군 병영생활을 위한 제언, 교회중심으로 본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선교 현장 속 생생한 신학적 이슈들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제언하는 이 논문집이 아무쪼록 국내외 군선교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선교신학회 회장 되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쿠팡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사무처 사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군종목사님들과 군선교교역자, 독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9월 30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

성례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이것은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다.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印)치시는 외형적인 표지이고, 우리 편에서는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의 표현이기도 하다. 본래 은혜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성례전은 눈에 보이는 은혜이다.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가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일, 사도들이 따랐던 일, 그리고 보다 더 순수한 교회가 지킨 것이다. 이 성례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갖기 위한 하나의 행위들이다. 또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정의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처럼 보여 주며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성례는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라 부를 수 있다.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서 있지만 성례가 첨가될 때에는 기둥으로 받친 것같이 더욱 튼튼하게 서 있게 된다. 성례가 믿음을 굳게 하는 의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지적 교사인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 적절하게 되는데, 성령과 성례를 구별해서 역사하는 힘은 전자에만 있고 그 임무는 후자에만 돌린다.

성례전은 그 속에 존재하는 교사이신 성령께서 참여하시는 때에만 비

로소 제대로 임무를 다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마음이 뚫리고 감정이 고조되어 성례전을 받아들이는 마음문이 열리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례전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성령께서는 외적인 말씀과 성례를 우리의 귀로부터 영혼에 전달한다. 말씀과 성례가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눈앞에 제시할 때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준다. 우리는 성례 자체를 믿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성례에 둘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믿음과 고백 모든 것을 제쳐 놓고 성례와 만물의 근원이신 분을 향해야 한다.

성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모든 성례의 본체(실체)는 그리스도시다. 성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실하고,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례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배양, 강화, 증진시키며 그를 더욱 완전히 소유하고 그의 풍부한 은혜를 즐기게 되는 것과 정비례해서 성례전이 우리들 사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게 되려면 성례가 제시하는 것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례의 진정한 기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기능이 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그 안에서 하늘 은혜의 보화들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졌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거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비전2020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20만 명 이상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 중 세례식과 함께 성찬예식을 반드시 행함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신학적 전거를 논하는 세미나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시행케 되었다.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신학적 의미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군선교사역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례전 모범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군선교신학회 위원들과 실무진들, 그리고 전후방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목, 군종사병, 일반인 군사역자들과 함께 군선교사역을 위해 깊은 연구와 집필을 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종윤

(한국군선교신학회회장)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머리말 | 박선희 목사 ... 4

발간사 | 이종윤 목사 ... 6

- 13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신학적 의미
- 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 Biblical-Theological meaning of Sacrament for Military Mission - | 이종윤 목사
- 40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 Baptism and Lord's Supper in military evangelism in relation to Christian Identity | 김세광 목사
- 64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에 대한 논찬 A comment : Baptism and Lord's Supper in military evangelism in relation to Christian Identity | 권오민 군종목사
- 69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A Sacramental Application to the Military Mission Field | 정비호 군종목사

- 104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에 대한 논찬 A comment: A Sacramental Application to the Mission Field | 최희범 목사
- 110 기쁨과 행복한 군 병영생활을 위한 제언 The Biblical Words for happy and joyful military Service | 강사문 목사
- 148 자살생각을 가진 병사들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 The Approach of Christian Counseling for Soldier's Suicidal Ideation | 김동연 군종목사
- 180 교회사에 나타난 군종활동의 역할과 의미 A study of the Chaplain Activities On Church History | 주연종 군종목사
- 211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 교회를 중심으로 History of Korean Diaspora, with a special referenece to the Korean Church | 오덕교 목사
- 234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원리 The Principle of the Bible Interpretation on Augustine's De doctrina christiana | 이규철 목사
- 265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A Study of a Method on the Catechumenal Practice in the Korean Military Context, Vision2020: With a Focus on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 Korean Early Presbyterian Treatise, CONFESSIO OF FAITH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910) | 최석환 군종목사
- 290 다자중심적 종교다원주의와 군선교 polycentric religious pluralism and military ministry | 강찬영 군종목사
- 320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A review on Military Mission in the Military society of religious diversity | 이석우 군종목사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신학적 의미 - 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 - Biblical-Theological meaning of Sacrament for Military Mission

■ 이종윤 Lee, Jong yun

- 서울교회 위임목사(Rev. Ph.D., D.D., D.D)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 Div, D.D)
- 영국 Univ. of St. Andrews(Ph. D.)
- 독일 튀빙겐 대학
- 장신대 명예신학박사(D.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운동 실천위원장
- 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기총 신학위원장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I. 들어가는 말: 간과할 수 없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 주제,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에 관한 가르침은, 기독교 최초 변증가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변증하기 위하여 택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왜냐하면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으로 인하여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미개한 종교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였던 '성만찬'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은,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자 루터(M. Luther), 그리고 츠빙글리(H. Zwingli)와 칼빈(J. Calvin)으로 이어지는 종교 개혁자들 사이의 신학적 논쟁으로 말미암아 - 중요한 신학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 오늘날에는 거의 간과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성례전'에 관한 가르침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참조 마 3:13-17, 병행 막 1:9-11; 눅 3:21-22)¹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이다(마 26:17-29; 참조 막 14:12-26; 눅 22:7-23; 요 13:21-30; 고전 11:23-25)

그런데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세례'와 '성만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례전'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서, '성례전'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목회와 예배의 형식들 가운데 하나로밖에는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성례' (Sakrament)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용어가 신학에 들어온 것은 라틴 성경(Vulgate)에 나타난 헬라어 'μυστήριον'을 번역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 (sacramentum)란 라틴어(Latein)의 헬라어적 의미, 곧 '비밀' (μυστήριον)이라는 의미에 사로잡혀, '성례' (세례와 성찬)에 사용되는 상징물(象徵物)인 물[水] 그리고 떡과 포도주

¹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베푸셨는가에 대하여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곧 이어서 4장 2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께서 친히 ‘물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자체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²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 서신들 속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고전 2:7-10; 롬 16:25f; 골 1:26f, 2:1-3; 엡 1:8-10, 3:3-7, 8-15),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종말론적 ‘비밀’, 곧 ‘신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³ 이러한 마술적 해석의 근거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니라”(this is my body - 막 14:22, 병행 마 26:26; 눅 22:19),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 막 14:24, 병행 마 26:28; 눅 22:20)고 하신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Peter Lombard(1100-1160)는 성례전을 ‘거룩함의 사인’(a sign of a sacred thing)이라 했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 양심에 외적으로 주님께서 인(印)을 쳐 주시는 것”이라고 하였다.⁴

그러므로 아래에서 우리는 먼저 ‘성례’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그다음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바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날 ‘군선교’를 위하여 ‘세례’와 ‘성만찬’이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숙고해 볼 것이다.

² Gunther Wenz, *Art. Sakramente I*, TRE 29, 663-684.

³ 대부분 개신교회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개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개, 즉 위의 두 가지에다 고해성사, 견신례, 혼례, 성직 임직식, 임종 도우례를 성례에 포함시킨다.

⁴ John Calvin, *Institutes*, 1172.

II. 구원의 표징으로서의 성례전

‘성례’ (sacramentum)라는 라틴어의 세속적인 의미는, 본래 군사(軍事) 용어(用語)로서, 군인들 사이의 맹약(盟約)을 의미하였다. 즉 장군(將軍)이 자기의 부하를 신실하게 사랑할 것을, 그리고 부하는 장군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예식이었다.⁵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 의미를 가진 ‘성례’란 성경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용하는 ‘성례’란 말은, 헬라어 ‘μυστήριον’ (비밀)이란 말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다. 즉 ‘비밀’이란, 만세(萬歲) 전부터 숨겨져 있는 천상(himmelisch)의 신적인 것,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⁶ 그런데 신적 ‘비밀’은, 단순히 피안(彼岸)의 천상 세계에 영원히 숨겨져 있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결합되어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이 밖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계시’ (ἀποκάλυψις, revelation)라고 하였다.⁷ 그런데 천상의 세계에 숨어 계시던 분이(참조 사 45:15) 이 세상에 물질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빌 2:6f). 그래서 바울은, ‘예수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Mysterium)’ (골 1:27)이라고 증언하고 있다.⁸ 다시 말

해서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골 1:15)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체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이다.⁹ 이와 같이 바울 신앙 전승에 의하면, ‘비밀’ 혹은 ‘성례’란 천상에 감추어 있던 신적인 것이 세상 물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엡 5:31-32)라고 말하고, 곧 이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2b)고 덧붙인다. 이 말은,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肉體)가 된 것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합하여 하나의 몸, 곧 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¹⁰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골 1:15) “그(=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 (골 1:18)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천상(天上)의 신적인 것과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결합된 ‘성례’는, 외적 형태에 있어서는 ‘떡’과 ‘예수의 몸’ 둘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¹¹ 즉 남편과 아내가 그 형태에 있어서는 둘이지만, 사랑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본질상 하나인 것과 같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vere deus)이시면서 참 인간(vere homo)이시고,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것과 같다(homoousia 동일본질).

⁵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A Handbook of Christian Doctrine Expounding The Westminster Cofession*, 김종흠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429.

⁶ H. Krämer, Art. μυστήριον, EWNT II, 1100.

⁷ 요한계시록이 ‘숨겨져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었다는 의미에서 ‘ἀποκάλυψις’(아포칼립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⁸ 골 1:26-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니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⁹ 골 1:15-17: “그(=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¹⁰ 이 점에 관하여: G. Bornkamm, Herrenmahl und Kirche bei Paulus, *ZThK* 53(1956), 312-347(Ges. Aufsätze II, 2.Aufl. 1963, 138-176).

¹¹ “이것은 내 몸이니라”(this is my body - 막 14:22, 병행 마 26:26; 눅 22:19); “이것(=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 막 14:24, 병행 마 26:28; 눅 22:20).

따라서 성례전은 그리스도 자신이 세우신 신성한 예식이다.¹² 즉 성찬식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세워 주신 것이고, 세례식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워 주신 제도이다. 따라서 성례전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전적 사인(sign)으로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는 예식이다. 예컨대 세례식에서는 물을, 그리고 성찬식에서는 찢기신 주의 몸과 흘리신 피의 '사인'(Bezeichnung)으로 떡과 포도즙을 사용한다. 가령, 고속도로에 부산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그 사인을 따라가면 부산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연합하게 하는 예식이다.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와 교제케 한다. 그러나 세례나 성찬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표징'이란 단지 소유 또는 소속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세례는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값으로 산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컨대 종교개혁의 최전선에서 28년간 투쟁해 오던 마틴 루터는 영적 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 자기 책상 위에 백묵으로 "Baptizatus Sum"(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두 개의 글자를 썼다고 한다. 그는 이 두 글자를 통해서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재차 확인하고, 종교개혁의 대업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성례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하는 이들에게 성례전은 은혜의 수단이다. 따라서 성례전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해하고 가르치는

¹² 성례전은 교회의 예배 때 기도를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명령된 것은 다르다. 가령, 찬송은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모범을 보여 주셨으나(막 14:26)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찬송을 하는 것은 좋으나 위임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성례전은 주님의 위임사항이다.

것처럼, 마술적 또는 기계적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격려하시려고 성례전을 사용하려고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세례는 은혜의 수단이고 축복을 전달하는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서가 되고, 그 증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더욱 의존케 되며, 그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마치 도장을 찍은 문서는 변조될 수 없듯이, 성례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와 함께 교제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도장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돈독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과 피로부터 오는 효력에 참여케 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예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가 주는 은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 6:4).

이처럼 우리는 '성례(비밀):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보편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거룩한 '성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편적 은혜의 방편인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¹³

III. ‘성례전’에 참여할 단 하나의 조건으로서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선포, 성례전, 그리고 기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나 도고의 기도(Fürbitte)를 올릴 때, 그리고 ‘성례’에 참여할 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이 없이는 ‘성례전’의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때에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게 때문이다(히 4:2). 이와 같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자도 제정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례’의 효과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례전’에 참여하는 사람이 성례의 제정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성례전’에 참여할 때, 성례전이 주는 은혜의 효과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義)를 인(引)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義)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롬 4:11).¹³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성찬’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새 언약(言約), 곧 새 계약 체결이라면(눅 22:20; 렘 31:31-33;

¹³ 여기서 ‘성례전’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면, ‘성례전’에 아무나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왜 성찬은 꼭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며, 세례는 꼭 죄를 회개해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새로운 논제로서 따로 취급되어야 할 주제라고 본다. 유아세례는 계약신학(covenant theology)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¹⁴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에 “입문(入門)하는 의식으로서 세례가 할례를 대신했다. 둘이 다 영적 중생을 의미한다(신 10:16, 30:6). 할례는 유대인의 세례이고, 세례는 기독교인의 할례이다(갈 3:27; 골 2:10-12)”(A. A. Hodge, 김종흡 역, op. cit., 438).

히 8:8-10),¹⁵ 새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새 언약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례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제정의 말씀이 없는 ‘성례전’은 물질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례전’ 제정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례전’과 더불어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 성령의 사역으로 참여자에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만찬’ 제정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결혼하는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도 듣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전제될 때에만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례전’도 상호 신뢰와 종속, 그리고 은혜와 순종이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새 언약에 의해서 제정된 ‘성례전’에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가 새 언약의 인(印)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의무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성례전’에 참여하는 자의 신앙과 관계없이 상징물 그 자체가 효력을 일으키는 마술적인 것(*opus operatum*)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상징물을 매개로 하나로 결합(bund)될 때, 성령에 의해서 그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막 1:4-5), ‘세례’도 죄의 회개를 전제한다. 자기의 죄를 고백

¹⁵ 눅 22:20 :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렘 31:31-33 :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겠는가?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따르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었지만,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던 것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왜 ‘세례’와 ‘성만찬’이 구원의 방편이요 표징인가? 이 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IV. 세례가 주는 의미

언어적인 의미에서 우선 ‘세례’라는 헬라어 *βάπτω*는 ‘담그다’ (eintauchen, 요 13:26; 눅 16:24), ‘적시다’, ‘담가서 물들이다’ (in Farbe tauchen, 계 19:13), 또는 ‘침례한다’ (untertauchen), ‘물에 잠기게 한다’는 뜻이 있다. 그리고 *βαπτίζω*는 잠긴다는 뜻이 있다.¹⁶ 그러나 이들 단어는 다른 의미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런데 희랍의 고전에서(주전 400년부터 주후 2세기 동안) *βαπτίζω*는 ‘변화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위치가 변하는 것, 물감으로 옷의 색이 변하는 것, 과음으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 희랍의 시인이며 의사였던 Nicander(B.C. 200)는 채소를 끓는 물속에 ‘담그고’ (*βάπτω*) 식초에 절인다(*βαπτίζω*)고 하였다. 결국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채소를 물(액체)에 담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첫 번째 것은 일시적 변화를 일으키나, 후자는 그 맛이 영구히 바뀌는 것이다. 소금물에 절이고 양념을 하면 배추 맛이 아닌 김치로 변하는 것과 같다.

¹⁶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völlig neu bearbeitete Aufl.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265f.

4.1. 교회의 입교식으로서의 세례 의미

이와 같은 언어적 의미를 가진 ‘세례’는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 ‘입교(入敎) 의식’의 하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다(롬 6:3; 고전 12:13). 그런데 교회는 이 관습을 세례 요한의 집단에서 전승한 것이다.¹⁷ 즉 로제(E. Lohse)에 의하면,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세례는 ‘죄 용서를 위한 요한의 세례’ (막 1:4 “*βάπτισμα μετανόιας εἰς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병행 행 2:38)를 전제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¹⁸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막 1:9-11).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의 ‘연대, 동일시’ 혹은 ‘연합’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지속되었음을 사도행전은 암시한다(행 18:24-19:7).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38)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선 ‘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입교예식’의 하나였다.

¹⁷ 이 점에 관하여: G. Wagner, *Das religionsgeschichtliche Problem von Röm 6*(1962), 1-11.

¹⁸ Eduard Lohse, *Grundriß der neutestamentlichen Theologie*, 3. Aufl., (Stuttgart: Kohlhammer Verlag), 65. 타이엔(H. Thyen)은 ‘죄 용서를 위한 세례’란 의미는 세례 요한이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이 점에 관하여: H. Thyen, *βάπτισμα μετανόιας εἰς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Zeit und Geschichte* (Fs. von Bultmann, 1964), 97-125.

4.2.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로서의 세례 의미

그런데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ἐπὶ τῷ ὀνόματι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으로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εἰς τὸ ὄνομα Ἰησοῦ*) 베풀어졌다. 세례가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졌다’는 것은, 세례 받은 자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 - 은유적 의미로 -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된 교회의 예식이 된 것이다.

어쨌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예식이 바로 세례였다. 그래서 콘첼만(H. Conzelmann) 같은 신학자는, 세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는 ‘이름으로’ 행하여질 때만 효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⁹ 따라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라고 선포하였던 것이다.²⁰ 이 말의 뜻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례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자신을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

세를 주셨다”(요 1:12)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례 받을 때 수세자가 갖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수세자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표징’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롬 6:3-4)라고 선포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영적 연대’(Solidarisierung) 혹은 ‘하나됨’(Einheit)을 의미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첫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인 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실 때 우리도 이미 죽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근거에서 우리의 죄는 이미 형벌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면전에 - 그리스도로 인해 -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현재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뜻이다(롬 6:11). 결과적으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동일시됨으로써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의 권세는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례 받은 자는 “또한 그(=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5, 개역한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 부활(고전 15:22)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새것이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¹⁹ Hans Conzelmann, *Grundriß der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공역, 『新約聖書神學』(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68), 64.

²⁰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의 전제는 될 수 없다. 만일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성경의 다른 증언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세례가 구원의 전제였다면,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의 전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빌 3:10)고 고백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구원의 표징’ 혹은 ‘사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출애굽’ 해석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4.3. 출애굽의 변이적 해석으로서의 세례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고전 10:1-2)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은 세례의 의미를 더욱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나 구름 속에 잠긴(세례 받은) 적이 없었다. 단지 구름은 그들 뒤에 있었고, 홍해는 그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인들로부터 구별되게 했다. 즉 바다에 빠지고 침몰된 것은 애굽인들이었다. 따라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해석한 것은 일종에 ‘동일성(同一性)의 변이(變移)적 해석’ 이다. 즉 홍해를 건너기 전 백성들은 애굽 왕 파라오의 백성이었지만,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과 같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옛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옛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이다.²¹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인’ (Sign)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표징’ 이다. 따라서 세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을 받은 셈이다.²²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것을 보증한 것이 바로 세례이다.

V. 성찬이 주는 의미

우선 성만찬(혹은 최후만찬)에 관한 마태(26:26-29), 마가(14:22-25), 누가복음(22:15-20)의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6:51-59)과 사도 바울(고전 11:23-29)의 말씀이 서로 약간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떡(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말씀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이것은……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말씀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공통되게 나타난다.²³ 특히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기사에서는 ‘잔, 곧 피를 계약의 피’ 로 특징짓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에 덧붙여, ‘죄 용서를 위한 피’ 로(마 26:28),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희생의 피’ 로(막 14:24; 눅 22:20)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의 성만찬 의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²¹ 이 점에 관하여: G. Bornkamm, *Tauf und neues Leben*, *ThBl* 18 (1938), 233-242(= *Paulusstudien*, 5.Aufl. 1966, 34-50).

²² 이 점에 관하여: E. Lohse, *Tauf und Rechtfertigung bei Paulus*, *KuD* 11 (1965), 308-324(= *Die Einheit des Neuen Testaments*, 1973, 228-244).

²³ 이 점에 관하여: 정양모, 배은주, 김윤주 엮음, 『네 복음서 대조』 (왜관: 분도출판사, 1993), 312-313.

의 ‘죽음을 기억해야 할’ (고전 11:25) 것을 덧붙이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예수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는 ‘종말론적 영생’ (요 6:54)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²⁴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관복음서는 ‘성만찬 제정’의 ‘삶의 정황’ (Sitz im Leben)을 ‘유월절 식사’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선 1. 출애굽 유월절과 희생제의 전승에서, 2. 계약신학적 전승에서, 3. 사도 바울의 교회론적 전승에서 그리고 4. 죄 용서와 영생과 관련된 종말론적 차원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5.1. 출애굽 유월절과 희생제의 전승의 의미

우선 공관복음서는 성만찬 제정의 ‘삶의 정황’을 유월절에 두고 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 26:17, 병행 막 14:12; 눅 22:7-9) 그런데 유월절 식사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 - 곧 니산 월 열나흘 날 밤 -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각 가족이 자기 식구를 위하여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었던 식사’이다(참조 출 12:3-11). 그런데 바로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여 재앙을 내리셨는데,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칠한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셨다’ (참조 출 12:23). 한마디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의 재앙에서 구원을

²⁴ J. Jeremias, *Die Abendmahlsworte Jesu* (1935), 4. Aufl. 1967; E. Käsemann, *Anliegen und Eigenart der paulinischen Abendmahlstheorie*, *EvTh* 7(1947/48), 263-283; E. Schweizer, *Abendmahl im NT*, *RGG I*, 10-21; P. Neuzeit, *Das Herrenmahl. Studien zur paulinischen Eucharistieauffassung* (1960).

얻은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성만찬 제정 시 예수님께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마 26:26, 병행 눅 22:19)고 말씀하실 때, 떡은 바로 유월절 희생당한 어린 양의 ‘고기(살)’를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참조 요 6:53).²⁵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눅 22:15)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곧 ‘니산월 14일 저녁’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다음 날 니산월 15일 저녁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지만 -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체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체포되는 순간 이미 ‘죽음에 내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 (막 14:43, 48; 마 26:47, 55)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²⁶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눅 22:53b)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째는 -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징이 된 것처럼 -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사인, 징표’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

²⁵ 요 6:53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²⁶ *σπάς*(샤파트)라는 ‘죽이다, 살해하다’ (kill), ‘도살(륙)하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치다, 때리다’ (beat)라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몽치’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듯이 예수님을 ‘때려잡으려 하였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H. W. Kuhn, *Art. ξίλον*, *EWNT II*, 1191-1194.

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요 6:54)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떡으로 표징된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포도주로 표징된 피)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 음료인 것이다(참조 요 6:55).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며, 이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요 6:56).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περὶ πολλῶν ἐκχυννόμενον εἰς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것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성만찬’ 제정의 ‘삶의 자리’를 분석한 결과, ‘성만찬’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심판(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징표(사인) -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담보’ -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5.2. 계약신학적 전승의 의미

공관복음서는 물론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성찬의 잔(=예수 그리스도의 피)을 ‘언약의 피’(τὸ αἷμά μου τῆς διαθήκης, 마 26:28; 막 14:24) 혹은 ‘새 언약의 피’(ἡ καινὴ διαθήκη, 눅 22:20; 고전 11:25)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설’은 구약의 계약전승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호렙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언약)을 맺으실 때, ‘피’로 맺으셨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출 24:8).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호렙(시내) 산에서 맺은 옛 계약의 갱신을 이미 예언하였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31:31-33).

이상의 계약 전승에 따르면, 성만찬은 -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분명 ‘새 언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잔’(포도주)을 ‘새 언약의 피’(ἡ καινὴ διαθήκη, 눅 22:20; 고전 11:25)라고 규정하셨고, 열두 제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한 것처럼(참조 출 24:7),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그의 증인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즉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을 직접 약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식탁’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 식탁을 배설한 사람과 연합 혹은 그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참조 갈 2:12).²⁷

그런데 성만찬의 계약신학적 의미를 사도 바울은 교회론적으로, 특히 선교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피로 세운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함’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²⁷ 갈 2: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5.3. 성찬의 교회론 혹은 선교적 의미

사도 바울은 공관복음서에 의한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에 성찬의 선교적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제의적 의미를 추가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3-25) 하는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전 11:23)와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 25)는 말이 새롭게 발견된다.²⁸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받은 것’ (παρέλαβον) - ‘전한 것’ (παρέδωκα)의 구조 속에 있는 ‘성만찬’에 대한 케리그마적 ‘전승’과 두 번의 ‘기념하라’ (ἀνάμνησιν)로 표현된 선교적 명령이 추가되고 있다.²⁹ 이러한 문장 혹은 문맥의 구조와 특성은, ‘성찬식’이 계속해서 전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실행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예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계약전승’과 죄 사함을 위한 ‘희생제의 전승’에 추가하여 성만찬을 통한 ‘그리스도와 의 연합’이라는 교회론은 정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의 교회론은 ‘성만찬

²⁸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바울의 전승’ (고전 11:23-26)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J. L. 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서남동 역, 『기독교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249.

²⁹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언이 항상 ‘전승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사도들의 증언과 자신의 증언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부활에 대한 증언에 있어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전 15:1);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고전 15:3a)라고 증언한다.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예배에서 매 주일 성만찬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가 ‘미사’로 정착되게 된 데는 바울의 ‘성만찬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서부터 ‘성만찬’ 혹은 ‘애찬’ (ἀγάπη, agape)은 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고전 10:16-17)으로 해석함으로써, 초대 교부들의 ‘성만찬’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을 가능케 하였다. 예컨대 교부 이레니우스는 “성만찬을 떡과 포도주로 드리는 희생 제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만찬에는 “천상적인 요소(materia coelestis)와 지상적인 요소(materia terrestis)”가 서로 공존해 있음을 주장하였다.³⁰ 그러나 어거스틴 (Augustinus)에 와서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corpus et sanguis Christi)” (Sermo, 234)라고 불렀고, “떡은 그리스도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몸이 된다” (Sermo, 234, 2: 227)고 주장하였다.³¹ 결국 성찬에 관한 교부들의 해석은 사도 바울의 ‘참여(사귄, 교제, κοινωνία)이론’,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교제)함’ (κοινωνία τοῦ αἵματος τοῦ Χριστοῦ)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교제)함’ (κοινωνία τοῦ σώματος τοῦ Χριστοῦ)을 실재론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각 교파의 이론은 이 두 요소를 어떻게 해

³⁰ J. L. Neve, *Op.cit.*, 254.

³¹ *Ibid.*에서 재인용.

석하느냐에 따라 분리되었다.³²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그리스도와 의 몸과 피를 통한 참여함 혹은 교제’로 증언하고 있는가? 과연 성만찬을 ‘실재론’적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해석한 것은, 그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골 1:18a).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와 몸’은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라, 직능적인 의미이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하게 에베소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엡 5:23, 참조 엡 4:15)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7)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배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처럼 그의 교회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 앞에서 이미 ‘머리의 개념’을 통치 혹은 보다 높은 권세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고전 11:3). 따라서 성만찬에 참

³²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찬을 통해 현재적으로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의견들이 있다. ① 예수는 전혀 임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성찬에는 기념의 성격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이라고 한다. ②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문자적으로 떡과 포도즙에 나타난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다. 미사 이전에는 순수한 떡이요 포도즙이지만 미사 중에 사제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한다. 예배자들은 떡과 포도즙을 받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주장한다. 소위 화체설을 의미한다. ③ 루터파에서는 공체설, 즉 떡과 포도즙 속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마치 불 속에 넣은 쇠가 쇠 속에 불이 있듯이 공체한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④ 칼빈주의자들은 신비설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하실 때 육체로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는다. 그리스도의 ‘참된 임재’는 성도가 떡과 포도즙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가능해 진다.

여하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실제로 뜯어 먹는 것’ [*maducatio oralis(physica)*]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³³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manducatio indignum*)이다(참조 고전 11:27).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참여(*koinwria*)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만찬의 ‘미래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막 14:25)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5.4. 종말론적 의미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영생’과 관련된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찬의 종말론적 의미는 특별히 요한복음의 증언에서 발견된다. 요한복음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종말론적 영생 혹은 구원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요한복음은 성찬 때 배분되는 ‘떡’ 혹은 ‘빵’과 ‘포도즙’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로 규정한다. “내(=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요 6:48).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요 6:51).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³³ ‘*maducatio oralis*’를 우리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 6:58). 이와 같이 요한복음이 증언한 성만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영생(永生)을 주는 ‘생명(生命)의 떡’,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요 6:50),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증하는 것’(요 6:54)이다.

‘성찬’의 종말론적 의미는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마 26:29)고 선언하셨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b)는 말씀과 긴장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성찬’에 주님께서 참여하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새것으로’(*καινόν*)라는 단어를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대칭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이 지상의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새로운 것’과 대립해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새것으로’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참조 계 21:6, 22:17; 사 55:1)로 이해되어야 한다.³⁴ 이러한 점에서 ‘성찬’은 단지 이 지상에서만 ‘기념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할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기념한다는 것을 ‘선교적 차원’에서 확장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그렇다면 이상 앞

³⁴ 사 55: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에서 살펴본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가 ‘군선교’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VI. 나오는 말: 영적 군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표징

전쟁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는 전투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도 있지만 ‘영적’ 혹은 ‘심리적’ 싸움도 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순히 사병들을 인위적으로 ‘사기진작’시키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오직 확고한 신앙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투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고한 신앙 위에 있을 때,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물리적 싸움에서도 승리한다. 그렇다면 전투하는 병사뿐만 아니라 그를 통솔하는 장교에게 어떻게 영적 싸움을 위한 신앙적 확신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전투하는 병사의 ‘신앙적 자의식’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신앙적 자의식’은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성례’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사사 기드온에 관한 기사에 의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투에 방해되는 ‘조건’들을 제거하도록 명하신다: “너(=기드온)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삿 7:3a). 왜냐하면 승리의 확신이 없어 두려워하는 자는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경계태세’를 갖춘 자와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은 자를 구분하도록 하신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핏을 것같이 혀로 물을 핏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핏는 자의 수는 삼

백 명이요”(삿 7:5-6a),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훔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삿 7:7). 이러한 기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투병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곧 영적 무장이 되어 있는 병사들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발된 기드온의 300명 부대원이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선택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선택된 여호와 의 군대’라는 의식이 - 전투에 부적격한 자들을 돌려보내는 사건을 통하여 - 그들에게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록 300명밖에 안 되지만, 기드온에게 수적 열세를 결코 항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택의식을 우리는 ‘세레’를 통하여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레를 줌으로써, 병사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군대’라는 신앙 속에서 ‘승리의 확신’을 의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형성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요 6:51),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 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 6:58)는 말씀이 병사들의 가슴에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러한 병사만이 전쟁에서 승리

할 것이다. 설사 전투를 하다 전사하여도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 속에서 싸우는 자만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레’와 ‘성만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찬의 제정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세레’와 ‘성찬’은 그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군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 의식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세레’와 ‘성만찬’을 통하여 형성된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은 - 전투가 없는 평소에는 -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성례’라는 세속적인 의미도 사실은 ‘군사용어’로서 ‘군인들 사이의 맹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군선교신학 제8권 발제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

Baptism and Lord's Supper in military
evangelism in relation to Christian Identity

■ 김세광 Kim, se kwang

- 서울장신대학교 신대원장/예배설교학 교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예배예식서 개정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예배학회 회장 역임
 - 미국 보스턴신학대학원(Th.D)
 - 미국 예일대학교신학대학원(STM)
 - 장로회신학대학원(M Div)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2009년 5월 군종목사 정책 회의 시 군종목사단에서 결의한 기독교 장병 정체성 강화 및 세례와 성찬을 동시에 집례하는 건에 대한 신학적 응답이다.¹ 이 회의에서 내건 구호가 '세례신자는 영원한 기독교인' 이었는데, 당연한 내용을 구호로까지 내건 것은 그만큼 현 군사역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¹ <군선교신문>, "4. 기독교 장병 정체성 강화", 제245호 (2009년 12월 7일), 3면.

이 결의 후에 6월 MEAK 대구지회 후원으로 집례되었던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에서 세례와 성찬 동시집례의 첫 시행이 있었다. 이러한 결의와 시행은 군선교 역사의 수많은 변화와 시도들 중에, 어느 사건에 비해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메가톤급 사건이라 할 만하다. 당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 동기가 우선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그 결정과 시행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급박한 결정과 과감한 시도에 공감하기 어렵지 않다. 군선교사역의 열매요 꽃이라 할 수 있는 진중세례까지 받은 상당수의 기독교 장병들이 장병 종교 전수 조사에서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군선교사역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당연히 군종의 종교별 판도에 영향을 주고, 군신자 수에 따른 성직자 수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현재 군선교사역 전 영역의 사기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세례자 자격 문제로 항상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진중세례사역의 정당성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는 형국이 되었다.

이 사건의 아이러니는 교회 전통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해온 요소가 세례인데, 수세자들의 기독교 정체성을 이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례는 죽음과 다시 삶이라는 드라마틱한 신학적 의미처럼, 수세자에게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출발선으로 여길 정도로 중요한 기독교 예전이다. 이러한 세례 이해는 이미 군선교사역에서 충분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반영되어 왔고, 대규모 세례식을 거뜬히 이행할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 문제가 불거진 것은 세례사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것과 함께 세례 후 성찬의 도입이라는 적극적인 대안을 생각한 것이다.

필자는 군종목사 정책회의 시 군종목사단이 느꼈을 상황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예배학 교수로서 세례와 성찬의 병행 집례 결의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신학자의 입장에서 응답하고, 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한다. 선교지로서의 군대 상황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반영하려는 것이 필자의 의도지만, 독자 입장에서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느꼈다면 필자의 표현력과 경험의 부족이다.

II. 군선교에서 성례식의 필요성

군선교에서 성례식과 관련한 첫 이슈는 이것이다. 즉, 군선교에서 성례식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성례식이라는 단어 때문인데, 세례만을 말했을 때와는 어감과 분위기가 다르다. 성례식은 주로 가장 교회적인 사역으로, 교회론과 함께 전통적 신학을 가장 성실히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한 선교현장인 군선교에서 성례를 다룬다는 것은 많은 새로운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논의들이란 예를 들면 학원선교, 직장선교, 선교단체와 같은 파라치치 운동에서는 자제시키는 성례식을 군선교에서만 허용하는 논리와 같은 것들이다.

필자는 군선교에서 성례식은 필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전통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직제, 남녀노소의 믿음 공동체의 영적 지원, 그리고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코이노니아 등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성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성이 군선교 사역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군선교에서의 성례식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다음 다섯 가지 성례의 의미는 군선교사역의 본질을 확인시켜 주고, 장병들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동력과 희

망을 줄 것이다.

2.1. 그리스도와의 만남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 활동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말씀봉독과 선포, 찬양, 혹은 이웃을 섬기는 봉사활동 등이 있다. 이중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실제적 사건으로 가장 실감나게 하는 것을 들면, 그것이 성례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성례전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하고 소중한 순서다.

성례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더욱 분명히 특별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에 발간된 『군인교회예식서』에 있는 것처럼 성례식은 학습식, 유아세례식, 입교식, 세례식, 성찬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² 이 논문에서 성례는 교회의 두 성례, 세례식과 성찬식만을 다룬다.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특징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의 7성례와 구분된다.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7성례에서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선택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모범행동과 시행명령이 있는가였고, 둘째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사역, 즉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전이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은 언제나 예수에 의해서 시작된 예식이면서,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을 담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 혹은 다른 신앙 활동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바, 즉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보다 사역자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염려를 벗을 수 있다.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² 한국군종목사단, 『군인교회예식서』 (서울: 쿤란출판사, 2010), 22-44.

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신비를 맞본다. 성찬을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경험을 한다.

2.2 기독교인의 정체성 확립

복음적 단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말씀들이 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요 1:12),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롬 10:9), 주 예수를 믿는 자(행 16:31)이다. 이 말씀들은 개인전도 시에 신앙의 권유를 하며 구원의 확신을 위해 제시되는 구절들이고, 따라서 그 순간 예수를 영접, 시인, 또는 믿기만 하면 그 즉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아니면 본회피가 염려했듯이 값싼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개인 간의 주고받는 고백과 대화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기에 불안한 점들이 많다.

역사적 교회들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 확립의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성례(sacrament)를 들었다. 성례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명제가 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태어나고 성찬으로 자라난다.' 이 명제에서 세례의 역할을 '태어나고'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세례의 본질적 의미와 역할을 잘 표현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세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결단과 희생을 각오했음을 의미한다. 세례는 당시 자신들의 본토 종교와 문화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과 결별선언을 하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예식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쿨란 공동체의 규례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모세 율법 준수서약과 할례, 그리고

정결예식이다. 그들은 물에서 나오는 순간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초대교회 이래로 세례의 중요성은 약화된 적이 없고, 오늘날 교회와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고,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중심에 위치해 있다.

다시 위의 명제로 돌아가서 성찬의 역할을 보자. 이 명제에 의하면 성찬은 세례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이다. 초대교회의 관습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 4주 금식하고 신앙교육을 받고 난 후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영적으로 연약한 유아일 뿐이다. 영적인 양식인 성찬을 받아먹음으로 튼튼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간다. 성찬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표지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듯이, 나누어 주시는 떡과 잔을 순종과 감사로 받음으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 명제는 기독교인의 출생과 성장을 성례예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례만으로는 장성한 믿음의 기독교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군선교사역에서 기독교장의 정체성 확립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세례예식과 함께 성찬예식이 배풀어져야 하는 이유다.

2.3. 지역교회와의 연대감

한국의 군선교는 지역교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 국방부의 군종제도 자체가 군종목사를 파송하는 11개 교단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단마다 신학적 성향과 교리와 예배의 차이가 있지만, 군선교사역이라는 사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단 연합사역으로서 군선교사역은 특별히 진중세례를 정점으로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보고서에 의하면 진중세례의 수세자들을 지역교회와 연결하고 등록시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³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새 생명들을 양육할 믿음공동체와의 협력

은 필수적이다. 진중세례 이후 받게 되는 성찬은 함께 먹고 마시는 교우들과 한 몸이 된다는 믿음을 표현한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믿음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찬은 자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례 받은 이들에게 성찬할 기회를 자주 제공할수록 한몸의식과 지역교회와의 연대감은 더욱 확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2.4. 역사적 교회와의 연대감

성례는 지역교회와 연대감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 역사적 교회와도 깊은 관계를 맺어 준다. 세례를 받는 순간 우선은 군부대 교회의 일원이 되지만, 동시에 전 세계 기독교와 접속이 된다. 마치 인터넷 세상에서 트위터에 가입하는 순간 트위터족이 되는 것과 같다. 세례 받은 이들은 교단을 초월하여 세례 받은 이들이 누리는 은혜를 공유할 수 있다. 성경말씀에서 약속한 말씀에서부터, 세례자에게 주어진 참여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

2.5. 종교성 체험과 참여

신앙생활에서 성례예식의 특별한 역할을 든다면, 종교성 체험과 참여다. 신비로 표현되는 종교성을 기독교에서 찾는다면 성례예식이 이에 해당된다. 성례예식에는 2천 년 동안 간직해 온 예수 고유의 제스처와 어록이 있다. 집례자와 참여자는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2천 년 역사 속으로 들어가며,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와 느낌을 공유한다. 성례예식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물질이다. 물, 빵, 포도주라는 물질들이

³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9차 정기총회보고서 · 회의안』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0), 66.

영원한 세계를 여는 열쇠요, 그 안에서 사는 에너지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성례에서 교회의 예배자들은 능동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체험하고 참여한다. 설득과 이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기독교 신앙이 체험과 참여로 확신에 찬 신앙으로 다져져 가는 계기가 된다. 이해되지 않는 신앙은 맹목적이고 미신적이 될 위험이 있지만, 신비로운 체험에 집중하지 않는 신앙 또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기독 장병으로서 정체성 약화나 혼란현상은 적극적인 종교성 체험과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군선교에서 세례식의 위치와 새로운 가능성

군선교사역은 세례 사역이라고 할 정도로 세례식은 군선교사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세례 사역의 중요성은 2009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계획서에 나타난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핵심사업 10가지 중 첫 번째를 진중세례 20만 명으로 정하고, 두 번째를 대대급 군인교회 사역활성화로 전도와 수세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 잘 나타난다.⁴ 그럼에도 세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논문은 군선교사역의 다른 분야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의외다. 그런 중에 다음 네 논문은 진중세례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슈들을 알려 주고, 깊이 있는 논의로 진중세례에 대한 대안적 실천에 유익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주연중 목사의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은 한국 군선교의 진중세례의 역사를 통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현실적 문제들, 즉 성과지향, 이벤트화, 군중활동의 왜곡과 편중, 타 종교와의 갈

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9차 정기총회보고서 · 회의안』, 25.

등과 경쟁, 질적 퇴보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행사성 세례식에서의 집중을 경계하고 복음화와 양육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세례식은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종교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세례다운 세례를 베풀면서 진중세례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결론을 제시했다.⁵

2006년 장승권 목사의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에서는 진중세례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세례의 성서적 이해와 선교신학적 관점으로 대답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진중세례의 정당성을 동질집단의 원리, 집단개중운동, 수용성의 원리, 추수신학의 원리들을 맥가브란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푸에르토리코와 한국 선교역사에서 집단세례의 사례들을 분석한 것도 진중세례의 이해를 새롭게 한다.⁶

2007년의 우기식 목사의 “군선교와 세례운동”은 진중세례가 당면한 부정적 비판, 즉 종교 간 화합에 역행하는 예식이고 집단세례운동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세례운동의 정당성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있다. 논문자는 마지막으로 민간교회에서 제기하는 ‘확실한 신앙고백’ 위에 베풀어져야 하고 세례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과제로 남긴다.⁷ 이러한 과제에 대해 2008년 최석환 목사의 논문은 세례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세례자 교육

⁵ 주연중,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한국군선교신학회, 『군선교신학 1』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190-217. 최초의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21사단 66연대에서 장로교 합동 측 이상강 군목이 연대장 유정목 대령을 포함한 154명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 기원이라 한다. 같은 책, 201.

⁶ 장승권,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 한국군선교신학회, 『군선교신학 4』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6), 205-234.

⁷ 우기식, “군선교와 세례운동”, 한국군선교신학회, 『군선교신학 5』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7), 332-351.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방대한 자료와 한국교회 초기 문헌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이후 이 주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다듬어질 것 같다. 세례 교육에 대한 구체적 제안은 진중세례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아세례자 입교교육 강화, 세례자교육 강화, 성령에 대한 문답 강화, 신앙 여정의 관점에서의 세례이해 등은 필자도 이후에 다른 시각에서 제안할 바인데, 적절한 제안이다.⁸ 필자는 이러한 논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행해지는 세례식의 순서와 내용에 관해 살펴보고, 적극적인 세례사역을 위한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구체적인 제안을 하려는 것이다.

3.1. 세례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항상 재확인한다.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통과하게 되는 예전이 세례다. 그래서 전통교단에서는 세례를 입회식 또는 입교식(initiation)의 틀 안에 둔다. 비록 세례가 신앙의 기초요 출발이라고 하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의 초급과정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세례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기독교 정체성뿐 아니라 자격, 에너지, 그리고 채워 가야 할릇대가 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교회 전통에 따라 강조하는 세례의 의미가 조금씩 달랐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 간의 대화와 연합의 모임에서 각 교단이 지니고 있던 세례의 의미를 정리하게 되었다.⁹ 이러한 정의는 세례가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 정체성 확립과 신앙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례에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동참을 의미한다. 죽음과

⁸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군선교신학회, 『군선교신학 6』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8), 227-307.

⁹ 세계교회협의회 편, 『BEM 문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2-24.

부활은 세례의 두 축이며 가장 중요한 세례 의미다. 세례 받는 순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죽음과 다시 사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세례는 회개, 용서, 깨끗하게 함을 의미한다. 즉, 죄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의 시간이다. 세례의 전통은 정한 물로 몸을 씻는 정결례인데, 내용은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므로 윤리적 함축을 강조하고 있다(히 10:22; 벰전 3:21; 행 22:16; 고전 6:11).¹⁰

셋째,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가 유효한 것은 성령의 활동하심 때문이다. 물로 세례를 베푸다고 해서 물에 집중하고, 성령의 사역을 따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세례자들에게 기쁨을 부으시고, 성령의 약속을 부여하시며, 그들에게 인치신다.

넷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과의 결합 의미지는 세례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준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다. 세례로 인한 결합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즉 그리스도와 의 결합, 성도 상호 간의 결합, 지역교회와의 결합, 세계교회와의 결합이다. 세례 받은 자들은 한 몸 의식을 지니게 되며, 주님을 고백하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는다. 따라서, 세례는 교회 간의 일치운동의 출발점이 된다: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엡 4:5-6). 비록 교단이 다르고, 신학적 전통이 달라도 세례의 의미 앞에서 모두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표시를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종국적자들이다. 땅에 속한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

과 표시는 세례에 의해 주어진다. 세례자들은 현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표시

이렇게 세례는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깊은 신앙에 이르기까지 전 삶을 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세례예식은 처음 수세자들의 사건일 뿐 아니라 이미 세례 받은 자들에게도 처음 세례의 서약을 상기하고 확인하는 예식이 된다.

3.2. 신앙의 신비를 표현하는 세례예전이 되도록 한다.

현재 진중세례의 예전은 대규모 인원의 선교지라는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적극적이고 잘 준비된 예식이다. 수백 수천 명이 세례 받는 상황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의 현장으로 참여한 모두를 설레게 한다. 이런 설렘 때문에 교파를 초월하고, 또 먼 곳에서 심지어 미국교회에서까지 이 역사적 현장에 참여해서 세례를 집행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것 같다. 진중세례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미결 사항이지만 선교적 특수상황인 점을 깊이 고려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논문들이 선교적 관점, 역사적 관점, 신앙교육적 관점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면 여기서는 예전적 관점으로 대안을 제시해 본다.

(1) 성례전이 가진 신비적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예전이 되도록 한다. 설외의 경우는 어렵겠지만 교회 안에서 할 경우에는 자연광을 차단하고 어두운 가운데, 필요한 조명으로 세례 받는 현장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조명만으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고 하는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2) 세례의 상징인 물을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군인교회에 식서』에는 세례식에서의 물의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¹⁰ 『BEM 문서』, 23.

“목사는 세례자 앞으로 나가서 장로들 또는 제직들이 든 물그릇에 물을 짚어 세례자들의 머리에 얹고”¹¹

여기서 지시어가 “물그릇에 물을 짚어 세례자들의 머리에 얹고”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물의 사용에 너무 소극적이고 인색한 모습이다. 적어도 세 번 물을 사용하거나, 더 좋은 것은 관수례를 행하는 것이다. 관수례는 침수를 부담스러워하는 세례자들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평상복을 입은 채로 머리를 앞으로 또는 옆으로 하고 물을 세 번 붓는 방식이다. 물에 참여하고 또 물을 체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물을 붓는 것도 여의치 않다면 뿌리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 물을 짚어 머리에 대는 현재의 방식은 세례의 의미를 표현하기에 미흡하다.¹²

(3) 세례예식의 서약 순서에서 수세자뿐 아니라 회중과의 서약을 추가한다. 『군인교회예식서』에 실린 세례예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세례자 점명 (호명하여 앞자리에 명찰을 부착하고 나와 앉게 할 것)

예식사

기도 (목사는 세례 받을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서약 (목사가 세례자에게)

기도 (목사는 세례 받을 자를 위하여 다시 한 번 기도한다)

¹¹ 『군인교회예식서』, 34.

¹² 미국장로교(PCUSA)의 공동예배서에는 두 가지 세례예전이 소개되어 있는데, 세례예전 1에는 “목사는 수세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린다”이고, 세례예전 2에는 “목사가 수세자를 물에 잠그거나 수세자의 머리 위에 물을 세 번 붓는다”이다. 미국장로교, 『공동예배서』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1), 512, 527.

세례식 (목사는 세례자 앞으로 나가서 장로들 또는 제직들이 든 물그릇의 물을 짚어 세례자들의 머리에 얹고)

공포 (목사는 세례를 베푸는 다음 강단에 올라가서)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다)

찬송

축도

이 예식은 한국교회가 행하는 세례예식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서 서약 순서는 목사가 세례자와 문답하는 형식으로 행해진다. 서약 후에 바로 기도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회중과의 서약도 필요한 것이다. 회중과의 서약은 현재 통합 측의 『예배 · 예식서』, 감리교의 『새예배서』, 기독교성결교의 『예배와 예식서』에 포함되어 있다.¹³ 미국장로교(PCUSA)는 세례자마다 후견인이 있어서 회중과의 서약 대신에 후견인과의 서약이 있다.

진중세례의 경우는 지역교회와는 다른 선교지 상황이므로 회중과의 서약의 내용을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겠다. 즉, 집례자가 수세자들이 제대 후에 가게 될 지역교회를 대신하여 그 모든 교회들이 영적 후견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교회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주기 위해 참석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후견인으로 하여 서약의 응답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 1. 집례자: 여러분은 후견인으로서 오늘 세례 받는 이들이 기독교

¹³ 예식서개정위원회, 『예배 · 예식서(표준개정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신앙과직제위원회, 『새예배서』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6), 새예식서수정위원회, 『예배와 예식서』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2004). 기독교장로교의 『희년예배서』(2006)에는 회중의 서약이 빠져 있다.

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겠습니까?

후견인(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예.

예 2. 집례자: 여러분은 오늘 세례 받아 기독교인이 된 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을 돌보아 주며, 성숙한 믿음이 되기까지 돌보
 아주겠습니까?

후견인(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저희가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4) 지역교회는 세례재확인예식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흔히 군에
 서 받은 세례예식에 대해 불신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다. 교단을 초월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세례를
 시행하지 않는다. 대신에 최근 미국장로교를 포함해서 세례 받은 이들을
 위해 세례재확인예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세례 받았을 때의
 서약을 상기하고 확인하는 것이다.¹⁴ 이때는 다시 물세례를 주지는 않는
 다. 준비된 서약을 행하는 내용의 서약을 다시 하고 안수기도를 행하는 것
 이 포함되어 있다. 세례재확인예식은 군인들뿐 아니라 교파 간, 지역 간
 회중의 이동이 많은 지역교회에서도 필요한 예식이다. 세례재확인예식의
 대상자는 군세례뿐 아니라 신앙상담을 통해 기독교신앙에 여러 문제와
 회의, 그리고 변화를 겪고 있는 회중이 목회자와의 신앙상담을 통해 세례
 의 서약이 상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¹⁴ 미국장로교의 경우, 세례언약재확인예식에는 '신앙성장의 기회'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즉, 성경낭독 부르심 - 신앙고백 - 안수기도(이때 기름이나 이마
 위에 십자가 표시를 한다) - 평화의 인사(『공동예배서』, 575-601).

IV. 군선교에서 성찬식의 적용 가능성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선교에 있어서 성찬의 역할은 세례의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진중성찬은 신학적이고 목회적 차원에서 군선교에 새로
 운 가능성을 던져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진중성찬의 상황을 보면 진중세례
 에 비해 사역의 비중이 크게 떨어진다. 군선교사역 계획서를 보면 비전
 2020실천운동이나 핵심사업에 성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진중
 세례가 첫 번째, 두번 째로 언급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을 반영하듯
 이 군선교신학 학술지에 진중세례에 관한 논문이 네 차례 실린 것에 비해
 성찬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5월 군종목사 정책회의 시 군종목사단에서 세
 례와 성찬을 동시에 집례하는 건을 결의했다는 것은 군선교의 역사적 사
 건이라 할 수 있다. 성찬집례가 등장한 것은 기독교정체성 강화라는 시급
 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보이는데 그 동기도 적절했고, 더구나 실
 제로 한 달 후에 교육대에서 첫 번째 시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진중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
 들이 많이 있겠으나, 성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진중세례가 정착해 나가
 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해결해 나갈 가치가 있다. 2010년 발간된
 『군교회예식서』의 성찬예식에 최근 개정된 교단별 성찬예식들이 잘 반영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찬병행시행에 대한 군종목사단의 결의가 엿보인
 다.¹⁶ 필자는 군종목사단의 성찬도입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군선교에서

¹⁵ 통합 측 장로교의 경우는 세례언약재확인예식을 2009년 발행된 『표준예식서의 부
 록에 첨가해 놓았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즉, 예식선언 - 신앙고백(포기의 서약) - 사도신
 경 - 세례에 대한 감사기도 - 권면의 선언(양손을 펼치며, 또는 세례반에 종려나무 가지를
 담아 세례재확인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뿌리며) - 안수기도-평화의 인사. 대한예수
 교장로회, 예배 · 예식서(표준개정판)』(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578-582.

성찬식을 도입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적절한 예식과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성찬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상기한다.

성찬교육과 성찬집례에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성찬의 의미다. 교회역사에서 성찬은 교단마다 강조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들을 지닌 채 전해져 왔다. 20세기 들어와서 교회 간의 대화와 연합의 모임에서 각 교단이 지니고 있던 성찬의 의미를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성찬이 더 적극적으로 신앙형성과 양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anamnesis)으로서의 성찬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재림의 약속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 종 되심,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시고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고난 주간뿐 아니라 부활절에도 적절한 예전이 된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eucharist)로서의 성찬이다. 감사로서의 성찬의 의미는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 익숙하지 않다. 한국교회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수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봉헌이 된다는 의미는 처음 접해 본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 감사예전으로서 성찬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 즉 ‘사례하시고’ (개역개정에서는 ‘감사기도하시고’)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다. 성찬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카리스트(eucharist)는 바로 이 ‘감사기도’의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부른 것이다.

셋째, 성령 초대(epiclesis)로서의 성찬이다. 성찬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 되도록, 즉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위해 성령의 은사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다. 이것을 에피클레시스(epiclesis)라고 하며, 『군교회예식서』에 나와 있는 ‘성령임재의 기원’ 순서가 여기에 근거한다.¹⁷ 한국 교회가 특별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집회와 성령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찬에서의 성령 임재를 모를 때가 많다. 모든 성령 사역은 성찬에서부터 출발하고, 성찬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것을 기대할 때 바른 교회론, 삼위

¹⁶ 『군교회예식서』, 35-44. 제1안과 제2안이 있는데, 1안은 현재 지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식이고, 2안은 세계교회의 연합운동의 일환으로 각 교파가 공유한 성찬 예전을 정리한 리마 예식서를 반영한 예식이다.

(제1안)	(제2안)
조용한 기도	성만찬 초대
성경봉독	시작 기도
성만찬으로의 초대	삼성창
통성기도	성만찬제정사
성만찬제정사	기념사
성령임재 기도	성령임재의 기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마침 기원
분병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분급	평화의 인사
성만찬 후 감사기도	분병례
	분급
	성만찬 후 감사기도

¹⁷ 『군교회예식서』, 42. “기록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일체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성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복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넷째, 성도의 교제(koinonia)로서의 성찬이다.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사용하는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성찬은 교회의 행위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데,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해와 관련된다. 그리스도의 몸의 사건으로서의 성찬은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참된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지향하게 한다. 성찬 예식 중에 평화의 인사를 교환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를 표현한 것이다. 교회 안에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모든 프로그램들은 성찬에서 표현되는 코이노니아를 기초로 할 때 건강하다. 성찬은 교회가 사회적인 사교모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교회를 지켜준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식사(Kingdom meal)로서의 성찬이다. 성찬은 기독교인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예전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실 식사를 미리 맛본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BEM 문서』에서 이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성찬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전을 열어 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 같은 갱신의 징표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인간이 정의, 사랑,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든지 이 세상 안에 있다. 성찬은 이 같은 징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임해 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기념하고 고대하는 축제이다.”¹⁸⁾

18) 『BEM 문서』, 42.

4.2. 신앙의 신비를 표현하는 성찬예전이 되도록 준비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찬은 교회의 신학과 예배, 그리고 성도의 신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성찬을 강조하다 보면, 성찬의 예전은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순서와 요소들을 충실히 지켜 나가야 하는 의무와 사명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선교현장에서 전통적인 성찬예전을 그대로 집례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특별히 성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회중이 많은 군선교지에서는 긴 기도문들과 복잡해 보이는 예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성찬은 선교지에서는 맞지 않는 예전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독교 정체성이라는 과제에 있어 성찬이 담당할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성찬예전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다. 다음 몇 가지 구체적 지침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전통적 성찬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성찬예전을 행하는 것이다. 최근 예배갱신운동에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성찬의 횟수 증가다. 예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교회들은 기존에 연 2-5회에서 매월 1회 정도로 성찬을 행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교회에서 성찬이 자주 행해지지 못한 이유는 종교개혁 당시에 츠빙글리를 비롯한 비예전적 성향의 신학자들이 단순한 성찬을 선호한 데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후 일선 목회자들도 성찬 순서와 내용이 복잡하고 길고, 또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왔다. 특히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만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고난주간에 행하는 예전으로 축소시켰다.

성찬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섯 가지 의미가 있고, 이것은 기독교 예배가 표현해야 할 모든 중요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교회력이나 주일예배에서 성찬이 설교처럼 적절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교

회들은 기회 있는 대로 성찬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성찬을 연 2회, 또는 4회 행하는 교회는 현행 그대로 잘 갖추어진 순서와 내용을 행할 필요가 있으나 성찬을 월 1회, 또는 그보다 자주 하는 교회에서는 성찬의 순서와 내용은 거기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군선교의 성찬도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 맞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신앙정체성 확립과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 성찬은 말씀선포의 또 다른 한 형태, 즉 보이는 말씀으로서 선포되는 시간이다. 성찬은 고난주간에 행해지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다. 매주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visible word of God)이다. 추상적이고 사변적이 될 수 있는 기독교의 메시지와 교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으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이 성찬의 역할이다. 설교하듯이 성찬을 집례하고, 설교말씀을 듣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3) 성찬의 다섯 가지 의미는 기독교 메시지 전체를 요약하고 표현한다.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다섯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즉, 하나님께 감사(thanksgiving to God), 그리스도를 기억(anamnesis of Christ), 성령의 임재간구(epiclesis), 성도의 교제(koinonia), 하나님 나라 식사(Kingdom meal)이다. 기독교의 기본교리,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성찬은 1년 52주 어느 때나 주일예배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성찬은 분명히 예배의 지킴이이며, 설교의 동역자이다.

(4) 그리스도의 삶과 뜻에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예전이 되도록 한다. 순서와 방법을 잘 준비하면 회집인원이 많아도 짧은 시

간에 역동적인 성찬을 행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규모의 연합모임이나 많은 신학교에서 이러한 성찬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분병, 분잔 위원들이 앞에서 있고, 회중이 일렬로 나와서 떡(웨이퍼)을 잔(포도즙)에 찍어 먹는 방법이다. 회중이 많으면 그만큼 분병, 분잔위원을 많이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2-3천 명의 교회도 10-15분 내외의 성찬을 행할 수 있다. 이때 집례자는 성찬제정어를 행할 때, 모든 회중이 떡을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자르고 잔도 높이 들어 따른 후에, 양손에 떡과 잔을 들고 성찬기도를 한 후 분병, 분잔을 하는 예전적 시도는 성찬 참여자들에게 역동적인 성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5) 성찬의 분위기는 역동적이지만 기본 분위기는 진지하고 장엄함을 유지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로서 성찬의 의미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다. 현대교회의 예배 흐름 중에 역동적이고 축제 같은 예배를 지향하며 감동과 감격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교회 중에 간혹 성찬을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식사로 참여할 것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중을 혼란케 한다. 성찬에서의 감사와 기쁨은 성격상 종말론적이다. 약속으로 주어졌으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기쁨이요, 감사다. 그러므로 성격상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역설적인 분위기다. 그러므로 성찬의 분위기는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아니라 압도적인 신비경 앞에 전율을 느끼며 그 순간 인간의 환경을 초월하고 침묵하는 모습과 같은 분위기가 더 적절하다.

V. 나가는 말

글을 마치면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명제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

로 태어나고, 성찬으로 자라난다.” 그리스도인의 출생과 양육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명제는 선교적 교회가 지향해야 할 과제를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추수할 것이 많은 하나님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힘써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짚어 준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사명을 수행해 왔고, 그 결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자라 왔다. 이러한 탄생과 양육의 메커니즘은 교회를 넘어 사회 각 분야의 선교현장에서도 적용되어 왔다. 선교지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키는 통로는 세례사역이다. 세례의 물을 통해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난다. 군선교사역이 진중세례에 집중하고 지속적인 헌신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젠 세례사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다. 성찬을 통한 믿음의 확신과 양육이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살게 된 기독교장병들이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성찬이 중요하다.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 공동체의 믿음의 확신과 성장의 중심에 언제나 성찬이 있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으로서 성찬은 군선교사역에서 세례를 받은 기독교장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매일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육체처럼, 세례 받아 새로운 존재 된 그리스도인의 몸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찬임을 군선교사역자들 먼저 확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성찬의 순서와 방법은 역사적으로 신학적 전통에 따라, 현지 문화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군선교지에 합당하고 적절한 방식의 성찬은 필수적이다. 현장에 맞게 단순화된 성찬예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것은 다양한 성찬 전통을 지닌 세계교회들의 지혜를 따르면 될 것이다. 즉, 전통적 성찬의 정교한 예식에 대한 부담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단순화한 성찬예식이라도 ‘가능한 한 자주’ 행하는 것이 믿음

에 유익이라는 점이다. 진중세례와 더불어 진중성찬은 기독교장병들로 하여금 기독교 정체성 확립과 지역교회와의 연대감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세계교회와 연합을 이루는 행진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에 대한 논찬

A comment : Baptism and Lord's Supper
in military evangelism in relation to Christian Identity

■ 권오민 Kwon, Oh min

- 군종 55기
- 총신대학교/총신신대원 졸업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선교학 TH. M.
- 미국 리폼드 신학교 D. MIN. 과정 수료
- 총신 목대원 선교학 TH. D. 과정 중



2009년 5월 군종목사 정책회의 시 결의함으로써 현재 전후방 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실행되고 있는 세례 시 성찬의 동시 실행은 현재 군선교 현장의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하지만 군선교 현장, 특히 신병교육대에서 성찬식을 실행함에 있어 성찬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근거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것과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신학적 논문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김세광 교수의 논문은 아주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에 대한 김세광 박사의 연구는 첫째, 진중성찬이 기독교 성례에 있어 세례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기독교의 정통적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진중성찬이 단순히 진중세례의 보조적 도구가 아닌 진중세례를 완성시키는, 성례의 또 다른 기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셋째, 진중성찬에 대한 군에 맞는 적절한 예식과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예하 군인교회들이 진중성찬을 실행함에 있어 하나의 가이드 라인을 세워 진중성찬의 효과적인 실행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진중성찬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킴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현재 많은 신병교육대에서 진중세례 시 성찬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부대에서는 여전히 성찬의 동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진중성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나 가장 큰 것은 성찬에 대한 군종목사들의 인식이 분명하지 않거나 성숙되지 않은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세광 박사의 논문은 매우 적절하다. 무엇보다도 김 박사가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태어나고 성찬을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명제에 깊이 동감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논자는 글에서 성찬이 가지는 중요한 다섯 가지의 의미를 언급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 기독교인의 정체성 확립, 지역교회 및 역사적 교회와의 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성 체험과 참여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본 논찬자는 김 박사가 언급한 기독교인의 정체성 확립 부분, 종교성 체험과 참여 부분에 깊이 동의하는 바이다.

현재 군선교는 장병신앙 전수조사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전수조사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 군선교의 아쉬움은 그 많은 훈련소에서의 세례 집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수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분명한 관계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진중성찬은 진중세례자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움에 있어 또 하나의 분명한 계기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논자는 세례와 성찬이 예수의 의해 시작된 예식이며, 예수의 본질적 사역을 담고 있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세례를 통해 태어난 새로운 생명은 성찬을 통해 자라나게 된다. 성찬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를 장성한 믿음의 신자로 세워 가는 특별한 은혜의 예식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논자는 성찬이 세례자들로 하여금 종교적 체험과 신비에 참여케 하는 특별한 예식임을 강조한다. 참여자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기독교의 2천 년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옛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혹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은혜와 느낌을 공유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단조롭고 교의적인 예배 의식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체험적 신앙과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케 함으로써 확신에 찬 신앙으로 성장케 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실질적으로 사단 신병교육대를 담당하는 현장의 군종목사로서 성찬의 동시 실행은 분명히 세례로써만 이루어지던 장병 세례예식에 비해 훨씬 더 진중하고 감동적이다. 세례를 받은 장병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며,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 깊이 각인하게 된다. “성찬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표지이다”라는 김 박사의 인용은 특히 신세대 장병

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의미를 가진다.

신세대들은 그 어떤 세대들보다 멀티미디어적이다. 누구보다 인터넷에 몰입된 세대이며,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익숙한 세대들이다. 성찬은 예전적인 부분에 약한 기독교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예식이다. 세례를 받은 장병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는 성찬을 통해 그들이 얻은 믿음의 고귀함과 거룩함을 더욱 분명하게 새기게 될 것이다.

본 논찬자는 현재 군에서 실행되고 있는 진중성찬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논의점들이 김세광 박사의 논문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면서도, 본 논찬을 통해 몇 가지 보완적인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예식이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를 통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군인예식서에 나와 있는 성찬 예식은 주로 일반 군인교회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진중성찬이 이루어지는 신병훈련소의 세례 시에 활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적인 제한요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중세례식에 적합한 단순하면서 성찬의 핵심을 고루 지닌 통일화된 예식순서가 제정되었으면 한다.

둘째, 진중성찬을 위한 구별화된 성찬기구의 보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재 각 신병교육대의 진중성찬은 목회자의 이해와 신학적 견해에 따라, 혹은 성찬을 준비하는 교회의 여건에 따라 제각각이다. 진중성찬의 분위기와 시간 여건상 일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 성찬기의 사용은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분병을 따로 하거나 분잔을 하기에는 시간상 무리와 동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 진중세례식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성찬기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떡과 포도주가 보이는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담는 성찬기 역시 보이는 예전의 한 부분이므로 신학적 논의를 거쳐 통일된 성찬기를 보급하는

것도 적절한 성찬의 순서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진중성찬의 의미를 세우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진중세례만 실행되는 세례식과 진중성찬이 동시에 실행되는 세례식에 대한 또 다른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실질적으로 진중성찬이 기독교의 정체성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관한 현장에서의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진중성찬이 실행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아마도 많은 야전부대에서 성찬에 대한 여러 논의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연구들이 실질적인 과업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한다.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A Sacramental Application to the Military Mission Field

정비호 Jung, bee-ho

-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신학석사(Th. M.)
- 풀러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D. Min.) 과정 중
- 육군 수기사 맹호교회 담임목사



I. 군선교 현장의 성례를 고민하며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묶어져 버렸다”¹는 토저의 지적은 ‘혼합주의’에 물든 현대 기독교에 ‘날카로운 찔림’을 준다. 최근 백종국은 이런 ‘변영주의 신학’의 폐해를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라고 지적했으며,² 옥성호는 그 현상을 ‘심리학 · 마케팅 ·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라고 비판했다.³

¹ A. W. Tozer, *Tozer On Worship And Entertainment*, 이용복 역, 『예배인가, 쇼인가』 (서울: 규장, 2004), 213.

² 백종국,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서울: 뉴스앤조이, 2010).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토저는 기독교 교회의 ‘혼합주의’를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양극, 즉 세상과 교회의 간격을 메워 보려고 시도하다가 불법적인 결혼을 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지적은 이제 진부한 이야기가 되었을 정도이다. 성경은 결코 이런 불법적인 결혼을 용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불가능하다. 교회가 세상과 짝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참교회가 아니다. 세상에게는 경멸의 대상이고, 주님에게는 가증스럽고 가련한 잡종일 뿐이다.”⁴

토저가 ‘원칙주의자’라면, 스토트는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존 스토트는 토저의 열정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한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우리는 도피주의와 순응주의 둘 다 피해야 한다.”⁵

토저와 스토트의 지적은 기독교 성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독교 역

³ 옥성호,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⁴ A. W. Tozer, 『예배인가, 쇼인가?』, 213.

⁵ John R. W. Stott, *The Radical Disciple*, 김명희 역, 『제자도』 (서울: IVP, 2010), 21.

사와 전통은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거룩한 예전은 본질적인 진리와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예전조차도 시대와 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토저가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복음주의자 스토트는 도피주의와 순응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의 성례(성찬과 세례)는 전통적인 예전을 지키는 것과 현대적인 적용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그 균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특히, 군선교 현장에서 거룩한 성례의 뜻과 가치를 살리면서도 군 장병들의 문화에 걸맞게 시행하기란 더욱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군 종목사로서 찾은 세례식과 드문 성찬식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은 선교 현장에서 더욱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비전2020운동의 선교 목표를 향해 경주하면서도 진정한 성례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은 군선교 현장에서 고민하는 군종목사들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제10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의 주제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며, 이에 대한 군종목사로서의 현실적 고민을 나누고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성찬과 세례 돌아보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와 함께 연합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신앙의 출발점이다. 기독교에 입문하는 과정으로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세례 없이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세례를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성찬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도 분명한 성경적 근거⁶를 지니고 있으며,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 또한 예수님의 이른바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마 28:18-20)에서도 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거치는 필수 과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세례는 기독교인으로 출발하는 동기와 정체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성찬은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시행하시고, 명령하신 기독교 예식이다. 그래서 예수의 제정사가 담겨 있는 본문은 모든 성찬예식의 근거가 된다. 종교개혁은 성례전의 일곱 숫자(세례, 견진, 성찬, 고해, 병자, 사제서품, 혼인)를 포기하였다. 세례와 성만찬이 예수 자신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것과 세례와 성만찬을 제외한 다른 미사에 어떠한 “질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것은 말씀과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철저하게 통찰한 결과였다.⁸ 그래서 성례는 은총의 전달수단(방편)으로서 ‘성매’ (聖媒, sacrament)라는 말로 정의된다. 어거스틴이 설명한 것처럼, 성례는 “보이는 말씀” (*visibile verbum*)이다. “말씀이 시작되면, 곧 성례가 생긴다” (*Accedit verbum ad elementum et fit sacramentum*).⁹ 하나님의 불가시적 은총을 인간의 가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여주는 의식이며, 보이는 상징물(*visible symbol*)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invisible thing*)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예전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참여하는 신비로운 체험이 담겨 있어야 한다. 성찬을 ‘속죄 제사’ (성찬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새롭게 반복되고 재현됨)로

받아들이는 로마 가톨릭 전통과는 달리 개혁신교회는 ‘찬미 제사’ (단 한 번,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한 그리스도 속죄의 완전성과 반복불가능성을 강조)로 이해했다. 개혁신교회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회상과 기억은 새로운 희생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임 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 (계 5:12-13)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예배와 함께, 예배 안에서 다뤄져야 하고, 기독교 예배의 필수요소가 되어야 한다. 최근 예배학의 주요 화두는 강조된 ‘말씀’과 잊혀진 ‘성찬’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목사의 ‘설교’로 강조되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에 동참하는 성찬의 감격이 어떻게 조화롭게 예배 안에서 전달되고 체험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중요한 신학주제이다.

세례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적 고백과 결단을 이끌어낸다. 또한 ‘거듭남’ (중생)을 체험하도록 돕는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자 예수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하늘양식(영적 에너지)을 공급하는 거룩한 식탁이다. ‘고백과 결단’의 자리에 섰던 이들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로 전진하기 위해 거룩한 식탁의 ‘공급과 교제’가 필요하다.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개인적인 고백과 결단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다.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한 공동운명체로 거룩한 식탁에서 나누고 연합하는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다.

1.2. 군선교 현장의 변화

비전2020운동은 ‘세례운동’으로 대표될 만큼 세례를 통한 군인 신자 확보에 주력했다. 그러나 최근의 군선교 현장은 세례와 더불어 세례신자를 성숙하게 양육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변화되었다. 비전2020운동의 수치상 목표였던 전 국민의 75% 복음화는 이제 10년 안에 가시적이고 잠재적인 성과를 분석하며 평가할 시기에 이르렀다. 1998년

⁶ 마 3:13-17; 막 1:9-11; 눅 3:21-22; 요 1:32-34.

⁷ 롬 6:3-4; 고전 12:13; 갈 3:27; 골 2:12; 벧전 3:21.

⁸ Bernhard Lohse, *Epochen Der Dogmen Geschichte*, 구영철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컨콜디아사, 1990), 162.

⁹ Horst G. Pöhlmann, *Abriss Der Dogmatik*, 이신건 역, 『교의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54.

도에 207,951명이던 세례인원은 10년이 지난 2008년도에는 174,550명으로 16.1% 감소하였으며, 지난 2009년도에는 171,435명으로 1998년도 대비 17.6% 감소하였다.¹⁰ 이런 감소추세는 앞으로 국방개혁에 따른 군 병력 감축과 무종교 인원 증가¹¹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 세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경쟁에 원불교까지 가세한 선교 현장은 다른 종교는 물론이고 ‘종교 없음’이라 선언하는 장병들도 심각한 선교 대상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 장병의 절반 이상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라는 주제는 세례와 성찬이 군선교 현장에서 본질적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신학자, 군종목사(민간 사역자), 선교기관을 불러 모았다. 신학자는 성례의 본질적인 의미와 역사적 교훈을 되짚어 주는 것으로, 현장 사역자(군종목사와 민간 목회자)는 부대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성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선교기관(각 교단 및 선교 연합회)은 거기에 필요한 후원과 결연의 몫을 각각 담당해야 한다. 10회째를 맞는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은 한국교회 선교, 특히 군선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와 이정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효과적인 군선교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군종목사로서 세례와 성찬의 현실적 적용에 따른 현 실태와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위해 성례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더불어

¹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10 민·군연합 신앙전력화 회의(자료)' (서울: MEAK, 2010), 3.

¹¹ 종교(가 있는) 장병:무종교(종교 없음) 장병 비율은 329,027명(50.23%):325,973명(49.77%)로 거의 균형을 이룰 정도이다. *Ibid.*, 9.

성례전 모델 개발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몫을 감당하고자 한다.

II. 현 실태 및 문제점

2.1. 세례식만으로 부족한 기독교 정체성

군선교 현장에서 사단급 단위 세례식은 보통 월 1-2회가 시행되고 있다. 교육·양성 기관(훈련소 및 학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병 합동세례식이 사단급 신교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군선교 현장에 세례식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찬식 도입 배경은 세례 받은 신자가 기독교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 데 있었다. ‘기독교 장병 정체성 강화’가 그 주된 목표였다. 신앙고백과 결단으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장병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세례가 단순한 ‘회원가입’(멤버십)이 아니라 거룩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교제와 연합의 기초가 됨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돕자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도입은 그 자체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세례 ‘직후’(直後) 성찬은 선교 현장의 긴박한 필요성보다 ‘성급한 도입(시행)’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성찬에 참여하는 회중들은 집례자의 ‘권면’(exhortation)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예전 전통에 있다. 이 권면을 통해 집례자는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회중들의 헌신된 마음가짐과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유도한다. 즉 죄악 속에 타락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확신을 심어 주며, 주님의 말씀(성만찬 제정사)에 순종하여 거룩한 식탁을 나누며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게 하며,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한 헌신과 감사의 기쁨을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¹² 그런데 세례 직후 성찬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권면을 생략하거나 다른 순서(제정사, 기념사)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이다. 집단 세례식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찬식까지 도입한 것은 선교적 긴박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군종목사로서 떨쳐낼 수 없다. 거룩한 예전(liturgy)은 하루아침에 급속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역사적 전통과 선교적 현실 앞에서 고민하는 군종목사의 긴장감은 세례 직후 성찬을 쉽게 받아들이고 시행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고 있다.

둘째, 세례 직후 성찬은 세례식만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확신 부족’에서 나온 교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세례식에 또 다른 요소를 추가 도입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세례식 자체 보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세례식 자체만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심어줄 수 없다는 것은 세례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신학적 통찰과 교육이 세례 받는 장병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세례식을 거쳤음에도 기독교 정체성이 확보되지 못한 장병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만으로 ‘없던’ (?) 정체성이 생길지는 의문이다. ‘세례→성찬’이라는 순서적 시행이 정체성 ‘형성→강화’라는 도식으로 단순히 정리될 수 있을지는 충분한 신학적 토의와 현장 검증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

셋째, 세례 직후 성찬은 군선교 현장에서 세례식과 성찬식 모두를 경박한(싸구려) 예전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군종목사로서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횟수의 세례식을 시행하면서 선교적 보람과 감격을 느낄 때도

있지만, 진지하고 경건한 예전을 회복하고 싶다는 소망은 늘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세자(受洗者)를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한 선교적 자부심이 진정한 고백과 결단을 이끌어냈다는 감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일까?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는 청년층 신자들 대부분은 군에 와서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의 신앙과 예전을 경험하는 이들이다. 군선교 현장을 ‘황금어장’으로 부르는 이유가 이들을 세례를 통해 결신하게 만드는 데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속’(急速)은 ‘줄속’(拙速)이 될 위험이 아주 크다. 급격한 회심을 이끌어내기에는 현재 군선교 현장의 세례식은 여러 면에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 점진적 회심은 신앙공동체의 돌봄과 양육을 통해 이뤄진다. 일회성 세례식과 성찬식의 결합은 그 효과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 버릴 염려가 앞서게 된다. 세례의 일회성과는 대조적으로 성찬은 반복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수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와 또 떡과 잔의 비유적 제정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를 영속(永續)시키라고 명하신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¹³ 그러므로 일회성 세례와 영속성을 가진 성찬을 한 날에 결합하는 것은 굉장한 신학적 도전이기는 하지만 군인교회에서는 아직 성급한 시도라는 염려 또한 앞선다.

넷째, 세례 직후 성찬은 ‘일회성’ 준수와 ‘연속성’ 견지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세례의 일회적 제한은 모든 기독교 교회가 인정하고 있으며, 침례(immersion)로 행하지 않더라도 또다시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군인교회에서도 지켜진다. 그러나 군선교 현장에서 여러 세례식을 시행하다 보면 유아세례 받은 장병들이 다시 세례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

¹² William D. Maxwell,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On Outline Development and Forms*, 정장복역,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서울: 쿤란출판사, 1998), 144-145.

¹³ Ralph Martin, *Worship In The Early Church*, 오창윤 역, 『초대교회 예배』 (서울: 은성, 1993), 190.

며, 세례교육을 통해 세례의 일회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세례에 머리를 들이대는 장병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또한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 받은 이들이 자대에 배치되어 소속부대 교회를 출석하면서 자신의 세례에 대하여 회의를 품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세례 직후 성찬은 기독교의 가장 거룩한 예전으로서 일회성과 연속성이 만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거룩한 성례가 자칫 모두 경건하지 못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 버릴 위험을 군종목사로서 감지하게 된다. 그러기에 세례 직후 성찬은 그 시행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속성의 균형과 조화를 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회성+일회성’은 장병들에게 세례와 성찬 모두를 기억에서 지워 버릴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일회성+연속성’이 잘 조화를 만들어낸다면 세례 직후 성찬은 가장 이상적인 성례로서 군선교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교회에서 성찬식의 연속성이 얼마나 견지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례식 다음에 성찬식을 바로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성찬식이 되풀이되면서 세례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겨 주는 효과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군인교회의 성찬식이 얼마나 자주, 연속적으로 시행되어 그 효력을 세례자에게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종목사들 가운데에도 성찬식을 연속적으로 시행하며 꾸준히 하늘양식을 세례자들에게 공급하는 이들이 있지만, 성찬식과는 거리가 멀어 1년에 고작 몇 회를 시행하지 못하는 목회자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례 직후 성찬 시행보다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라고 본다. 성찬식 시행의 약화는 군인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전반의 문제로 지적된다. 그 잊혀지고 약화된 전통을 어떻게 다시 아름답게 살려낼 수 있을가를 신학자, 현

장 사역자, 후원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명령과 지시로 단순하게 시행되는 군대논리 적용 사안이 아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크나큰 선교적 오류와 문제를 남길 수도 있다.

2.2. 세례식에 이은 성찬식 수행의 부담(시간·자원·설치)

사단급 신병교육대의 세례식은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한 시간 30분에서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세례 대상과 집례자의 숫자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두 시간 안에 세례식을 마쳐야 장병들의 부대 일정과 후원 교회 방문자들의 복귀를 소화할 수 있다. 세례식만으로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다가 성찬식까지 시행한다면 아무리 간단하게 계산해도 20-3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세례식+성찬식에 소요되는 총 시간(찬양, 특별공연, 기념촬영, 간식·선물 배분 포함)은 무려 세 시간에 가까워진다.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세 시간은 집례자나 참석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부대 상황을 고려할 때 식사나 개인정비 시간을 빼앗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진중세례식에는 군종병을 비롯한 많은 부대 자원들이 동원된다. 그 자원이 그대로 성찬식에 활용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세례식 집례자가 그대로 성찬식을 집례하기 위해서는 세례 후 바로 성찬을 배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례가 끝난 다음 바로 성찬을 집례하기란 절차나 시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세례 직후 성찬을 시행하는 군인교회 대부분은 세례식과는 별도로 성찬식 집례자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형태로 치러지고 있다. 그 움직이는 동선은 ‘세례자→세례 집례자→성찬 집례자→원위치’로 그려진다. 세례자를 호명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집례자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고, 이어서 다시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면서 성찬 집례자로

부터 분병, 분잔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성찬식은 보통 ‘약식’으로 간단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다. 성찬 예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만찬 제정사, 성령 임재의 기도, 분병례가 아주 짧게 축약된 형태로 들려지기에 그 의미를 생각하며 진지하게 성찬에 참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세례 직후 성찬이 올바르게 경건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능숙한 집례자와 훈련된 보좌인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례식만으로도 벽찬 군인교회의 부족한 자원이 성찬식으로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게 된다.

세례식에 필요한 여러 집기(세례기)는 성찬식에 그대로 사용되기 어렵고, 성찬식을 위한 성찬대가 따로 설치되어야 한다. 세례식에 필요한 준비와 함께 성찬식 준비도 추가된다는 말이다. 또한 시간을 절약하려면 그만큼 많은 성찬기가 필요하다. 성찬기, 성찬대, 성찬보 추가 구입 예산과 관리·준비 부담이 세례식에 더해지는 결과를 만든다.

2.3. 성찬식 예문 학습과 교육 부족

천주교 미사에서 사제와 회중들 사이의 성사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이유는 집례자는 물론이고 회중들이 성찬식 순서에 따른 예문을 교리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를 받기 전에 교리교육을 비교적 충실히 받음으로 천주교 미사통상문에 대한 생소함이나 어색함이 훨씬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군인교회를 포함한 민간교회 대부분은 성찬식과 그 예문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세례교육’은 있으나 ‘성찬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는 교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찬식은 반복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된다. 성찬식이 적어도 매월 1회 정도 시행되는 교회에서는 세례식 이후에도 성찬식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지만 1년에 한두 번 특정 절기(부활절·성탄절)에만 시행되는 교회에서는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한 장병들이 또다시 부대 교회에서 거룩

한 식탁을 경험하기란 확률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찬식 시행 횟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학습이나 교육은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례식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한 세례 신자들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거룩한 식탁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문에 대한 이해와 안내가 상세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례 직후 성찬식은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찬식 시행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거룩한 식탁의 교제와 연합의 기쁨을 체험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습과 교육보다 실제 참여 경험이 성찬의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낯설고 어색한 성찬식 순서 하나하나를 친절히 해설과 안내로 인도한다면 그 예전적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2010년에 새로 발간된 『군인교회예식서』에서는 성찬식 집례 순서를 두 가지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⁴ 집례자 중심의 1안과 집례자와 회중 사이에 주고받는 순서로 짜여진 2안이 정리되어 있다. 세례 직후 성찬이 이어진다면 시간적으로 짧고 간결한 집례자 중심의 1안이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집례자와 회중 사이에 상호 교류가 있는 2안은 회중을 위한 별도의 예문을 준비하거나 미리 교육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체험하거나 성도들 사이의 거룩한 교제(the communion)를 맛보기 위해서는 1안보다는 2안이 훨씬 효과적이다. 집례자 중심의 일방성은 집례자와 회중 사이의 교제에 어느 정도 벽을 쌓기 때문이다.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2안이 성찬 예전으로 훨씬 좋겠지만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례교육과 더불어 성

¹⁴ 한국군종목사단 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발행, 『군인교회예식서』(서울: 쿤란출판사, 2010), 36-44.

찬교육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성찬식은 그 예문을 학습하고 교육시켰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적 체험도가 확연히 달라진다. 결혼식 순서에 담긴 의미를 알고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과 그 순서와 아무 관련 없이 구경꾼으로 참석하는 것이 다르듯이 성찬식 예문에 대한 교육은 세례와 함께 진지하게 교육적 의미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군인교회에서, 특히 세례 직후 성찬을 시행하는 장병 집단세례식에서 과연 얼마나 성찬식 예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4. 현실적 통계

육·해·공군의 대표적인 진중세례식 시행부대를 대상으로 세례식 직후 성찬식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표1>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세례식 시행부대 교회에서 세례식에 이어 성찬식을 곧바로 집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시간적 제한’이 가장 많았으며, 자원(보좌인력) 부족, 추가 예산(성찬기) 부담, 후원교회의 반대(복귀 독촉) 등이 뒤를 이었다.

<표 1> 군인교회 세례식 직후 성찬식 실시 현황(2010년 9월 현재)

구분	현재 실시부대	미 실시부대	제한사항(사유)
육군	21사단 30사단 35사단 50사단 53사단 56사단 63사단 71사단	1, 2, 3, 5, 6, 7, 8, 9, 11, 12, 15, 17, 20, 22, 23, 25, 26, 27, 28, 31, 32, 36, 37, 39, 51, 55, 57, 60, 61, 72, 73, 66, 75. 훈련소, 특수전교육단, 육사, 부사교, 3사교, 보병학교, 중행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부족(많은 대상, 위문공연 시간 확보, 후원교회 독촉) •자원(인력) 부족 •복잡함 •예산 부담 •자대에서 따로 시행 •세례 직후는 비현실적 •불필요
해군	·	교육사, 교육훈련단	시간 부족
공군	·	교육사	시간 부족
합계	8개 부대	43개 부대	총 51개 부대

세례 직후 성찬이 기독교인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실제 시행부대 군인교회의 현장 분석이 먼저 요청된다. 선교 정책적 결정이 곧바로 선교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미 실시 사유로 분석된 ‘시간 부족’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과 훈련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군종목사로서 세례식을 집례해 보면 후원교회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다양하게 걸리고, 성찬식 실시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이 꽤 부담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III. 군선교 현장의 성례 적용

3.1. 신학적 검증

군선교 현장에서 성례가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적 바탕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 군선교 현장은 다양한 교단적 배경과 신학이 연합하는 곳이다. 어떤 특정 신학이나 주장만으로는 선교연합 정신을 살려낼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신학적 검증이 요청된다. 성례에 대해서도 다양성 속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뤄내야 하지만 모호한 개념들을 품고서 의문과 회의를 낳으며 확신도 없는 성례가 시행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언젠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1.1. 진중세례 연구 회고

세례를 통한 기독교 신앙 정체성을 다시 신학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개된 군 선교는 세례운동을 통한 ‘군복음화·민족 복음화·세계복음화’ 추진이었다. ‘전군신자화운동’이나 ‘비전2020운동’은 그 핵심에 세례가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한국 군선교 현장의 중심에 세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통한 기독교 정체성 강화는 신학적인 뒷받침이 풍족하지 못하다. 아래는 세례에 대한 주요 군선교신학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주연중 군종목사는 이미 2004년도에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에서 진중세례식의 현실을 성과(숫자) 지향, 과시용 행사(이벤트화)로의 변질 우려, 군중활동의 왜곡과 편중, 타 종파와의 갈등 및 경쟁 초래, 세례 숫자의 감소와 질적 퇴보, 세례식에 치중하여 양육과 신자관리 소홀, 군의 불신 초래(종교 이기주의로 매도)로 진단했고, 개선 방향으로 세례 행사보다 전도(복음화)에 역점을 두고 소규모로 자주 시행하여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전환하여, 복음제시와 구령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¹⁵

정두영 목사는 “족속운동(집단개종, People Movement)과 군선교”(2004)에서 군교회의 합동세례식에 대한 세 가지 반론(① 성숙신자론, ② 세례의식 중시, ③ 교육 후 세례나, 세례 후 교육이나)에 대해, ① 세례 자질론보다 긴박한 군선교의 시급성, ② 의식보다 신앙고백이 중요함, ③ 신자들을 빨리 영입하기 위한 세례 후 교육의 필요성을 맥가브란의 ‘탐색·추수·선포의 신학’을 바탕으로 제시했다.¹⁶

장승권 군종목사는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2006)에서 세례와 연결된 할례, 희생제사, 정결의식의 의미를 밝히고, 선교역사를 통해 진중세례의 근거가 되는 집단세례 사례들을 제시했으며, 진중세례는

‘개인적인 세례’가 아니라 ‘공동체 세례’임을 강조하여 군선교가 ‘영혼 구원’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선교의 양 날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임을 주장했다.¹⁷

김인수 교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와 집단세례”(2007)에서 집단세례의 순기능(① 기독교인 숫자 증가, ② 군 사기 진작, ③ 군 내의 사고 감소)과 역기능(① 강압에 의한 성례, ② 성례의 오손(汚損), ③ 재세례의 문제)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군선교 방향(① 양적 성장, ② 질적 성장, ③ 일반 교회와의 연계, ④ 군대 내의 선교 프로그램 개발, ⑤ 민간교회의 관심 환기)을 제시했다.¹⁸

전호진 목사는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안”(2007)에서 군에서 활동하는 군종장교와 기타 목회자들 및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 신자로서의 현존(presence)을 드러내고, 기독교의 우월성(excellency)을 행동으로, 공동체로서 보여 주는 ‘사후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⁹

우기식 군종목사는 “군선교와 세례운동”(2007)에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세례는 ‘즉시로’의 세례(세례가 행해지기 전 복음의 선포와 이에 대한 수용과 믿음이 충족됨과 동시에 세례가 행해졌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군교회의 세례가 성경적인 진실된 세례로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했다.²⁰

¹⁵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 편, 『군선교신학1』 (서울: 쿰란출판사, 2004), 211-216.

¹⁶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 편, 『군선교신학2』 (서울: 쿰란출판사, 2004), 62-72.

¹⁷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 편, 『군선교신학4』 (서울: 쿰란출판사, 2006), 230-232.

¹⁸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 편, 『군선교신학5』 (서울: 쿰란출판사, 2007), 60-75.

¹⁹ *Ibid.*, 330-331.

최석환 군종목사는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2008)에서 세례의 역사적(초대, 중세, 종교개혁, 현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장로교 신앙교육 초기 문헌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했고, ‘뱃티즘’(성경 bible, 인간 a man, 기도 prayer, 믿음 trust, 입교 initiation, 성례 sacrament, 세례식 매뉴얼(manual of baptism) 방안을 제시했다.²¹ 이 논문은 구체적인 세례교육 방안에 대한 진지한 연구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선교신학에서 다뤄진 주제는 대부분 ‘진중(합동)세례의 당위성과 효력’을 강조하거나 반론에 대한 대응을 담고 있었다. 이제까지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진중세례가 한국 기독교 선교역사에 한 획을 긋는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시대적 요청은 ‘어떻게 구체적인 적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답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의 주제를 ‘성례’로 선택한 것이라 여겨진다. 성례야말로 구체적인 실천적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고, 적용의 문제를 고민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세례 직후 성찬’은 분명 기독교 신앙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방법은 기본적인 원리를 고민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 어떤 신학적 원리가 세례와 성찬을 ‘거룩한 의식(성례)’으로 정리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이런 신학적 성찰 과정을 생략한 채로 적용방법만을 고민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과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세례와 성찬에 관련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검토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며, 전문지식이 부

족한 관계로 이미 연구된 결과물에 의존하여 요약된 형태로 살펴보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욱 충실한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3.1.2. 성례의 역사적 검토

유대교의 쿤란 공동체는 공동식사와 제의적 성격을 띤 정결목욕을 시행했다. 공동식사는 정식 회원으로 간주된 자만이 참석할 수 있었고, 제상장이 공동식사의 사회를 맡고 음식과 음료에 축도를 한 뒤에 식사가 시작되었다. 정결목욕은 공동체에 가입한 지 적어도 1년 이상 된 사람에게만 허용했으며, 공동체의 어떤 규칙이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정결목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²²

1세기에 쓰여진 『Didaché, 12사도들의 교훈』에는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과 ‘세례’(Baptism) 수행에 관한 교훈이 발견된다. 그리고 2세기에는 순교자 저스틴(Justine Martyr)의 『변증서』에서 주일예배의 윤곽이 드러났고, 주의 만찬에 대한 순서도 나타났다. 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말씀의 예전(the Liturgy of the Word)과 다락방 예전(the Liturgy of the Upper Room)이 구성되어서 어느 정도 예배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²³

3세기 초에는 히폴리투스(Hippolytus)가 『사도적 전통』(the Apostolic Tradition)을 썼는데, 교회의 직제(order)와 예배의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 책 안에서 히폴리투스는 세례, 안수, 그리고 성찬(eucharist)에 관한 형식을 안내해 주었다. 4세기까지 기독교 세계 전 지역에서는 성찬식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지니며 행해졌다. 기독교 박해시기가 끝나고 번영을 이루게 된 기독교 예배는 꺾박을 받을 동안 견지했던 친밀성(intimacy)

²⁰ Ibid., 350-351.

²¹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 편, 『군선교신학6』(서울: 쿤란출판사, 2008), 294-307.

²² 김창선, 『쿤란 문서와 유대교』(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2), 71-73.

²³ 박은규, 『禮拜의 再發見』(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76-78.

을 잃게 되었고, 소수가 진지하게 코이노니아를 바탕으로 예배하던 예전적 모임(the liturgical assembly)을 상실하게 되었다.²⁴

서방교회는 전승되어 온 ‘말씀의 예전’부터 예배를 시작했지만 동방교회는 ‘성찬의 준비의식’으로 시작되었다. 니케아 신경(Nicene Creed)이 세례식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앙고백을 담은 신경을 최초로 동방교회가 사용했으며, 동방교회에 있어서 경배의 초점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구원자 예수에게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살아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모습에 있었다.²⁵ 따라서 예배는 지적(intellectual)이기보다는 감정의 교류(emotional)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설교는 약화되어 가고 감정적 교류를 줄 수 있는 요소(the emotional element)들(聖像, icon)이 극대화되었다.²⁶

6세기에서 7세기경에는 갈리아 의식(the Gallican rite)이 로마 의식(the Roman rite)과 함께 쌍벽을 이루며 발전하였다. 갈리아 의식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예배 가운데서 회중들이 응답하는 많은 순서들과 음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회중과 부제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 의식은 차츰 초기의 간결함을 잃어버렸다. 그 이유는 로마 의식이 갈리아 의식의 영향을 받았고, 중세 후기에 접어들면서 성만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만찬은 미사의 핵심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절정은 봉헌의 순간(moment of consecration)이었고, 이때 참여하는 것으로 미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미사는 차츰 시각적인 면(spectacle)으로 치중하였고, 의식 대부분이 소리 없이(inaudible) 진행되었고, 가시적 의식(visible

action)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초점이 맞춰졌다.²⁷

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적 미사(private masses)에 관한 요구가 더욱 많아지면서, 자연히 사제들도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교회의 구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몇 명의 사제들이 한 교회에서 매일의 미사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²⁸ 그래서 이를 시행하는 교회 또한 지역별로 세워지게 된다. 결국 신자와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교구’(parish)가 만들어졌고, 세례와 견진을 분리하게 되었다.

세례와 견진을 분리한 서방 기독교 전통과는 달리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세례 후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전통이 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보통 견진을 세례와 함께 한 번에 시행했다. 시프리안(Cyprian)의 표현대로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함께 하나의 “이중적 성사”를 이룬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어린아이들의 세례가 많아지면서 연중 내내 시행되고, 지방 본당의 수요가 늘어나 교구가 커지면서 주교가 모든 세례성사를 집전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서방교회는 세례의 완성을 주교에게 유보해 두려고 이 두 성사를 시간적으로 분리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이 두 성사를 일치시켜 왔다. 따라서 견진성사도 세례성사를 주는 사제가 배품다. 그러나 그 사제는 견진성사를 줄 때, 반드시 주교가 축성한 ‘성유’(聖油)를 사용해야 한다.

입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제도를 돌고 있다. 동방교회의 입교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단일한 행사로 결합되어 있다. ‘비잔틴 예식’(Byzantine rite)으로 가장 오래된 본문은 790년경의 ‘바버리니 감사기도서’(Barberini Euchologion)인데, 생후 8일 된 유아의 작명(作名) 기도, 40일째 되는 날 유아들이 의식을 갖추어 교리문답

²⁴ *Ibid.*, 79-86.

²⁵ *Ibid.*, 86-95.

²⁶ William D. Maxwell, *Op. cit.*, 65.

²⁷ *Ibid.*, 69-101.

²⁸ *Ibid.*, 98.

과 축사(逐邪)를 받고, 축성된 기름과 물로 기쁨의 성유를 바르고 세례를 받는 것이 나타나 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십자가와 말씀의 상징(성령은 사의 인침)인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후에 성만찬이 시작되며, 새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서방교회의 세례 유형은 훨씬 더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입교의 과정이 세 가지 행사로 발전되었고, 신학은 세례 가운데 실제로 무엇이 발생하는지 해석해 달라는 압력을 심하게 받았다. 5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겔라시안 성례집’(Gelasian sacramentary)에는 사순절 기간에 세례 받은 이들이 준비했고, 세례 받는 날에는 에비타(effeta, ‘열려라(에바다)’의 뜻을 가진 아람어로 수세자들의 귀와 입에 대고 외쳤던 세례식 준비 예식), 포기 승인(renunciation), 축사(逐邪, exorcism), 물을 축성함, 세례, 기름 부음, 주교의 안수, 성찬 미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⁹

교회의 조직화·제도화를 겪으면서 서방 기독교는 미사 횟수와 종류의 증가로 세례를 주는 사제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고, 로마 교회 미사 예식은 1570년 트렌트 공의회(the Council of Trent)에서 ‘일곱 성사’로 통일된다. 이 공의회에서 성사 일반과 세례와 견진 성사에 대해 토마스의 성사론을 재발견하고 발전시켜 그것이 일곱 가지라는 것, 성사는 객관적인 ‘수여의 행위에 의해(ex opere operato) 유효한 것, 성사 수여자는 교회의 뜻에 따른다는 의향을 가질 것, 세례, 견진, 사제 서품(ordinatio)은 지워 버릴 수 없는 영적 표징을 주는 것, 죄의 용서에는 세례를 상기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주교 이외의 사람은 견진 성사를 줄 수 없는 것’ 등을 명확히 선포했다.³⁰

서방교회가 세례를 주는 사제와 견진을 시행하는 주교를 분리한 것은

²⁹ James F. White,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역, 『예배의 역사』 (서울: 쿤란출판사, 1997), 105-107.

사제 위에 주교의 권위가 있음을 강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중세의 성직 계층구조(hierarchy)는 그 권위의 절정을 이룬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제단(altar)을 둔 것은 서방교회의 특징이 되었다. 이에 비해 동방교회는 한 교회에 단 하나의 제단(Holy Table)을 두었다.³¹ 주교, 장로, 집사들로 이뤄진 대성직계(大聲職階, major orders)와 소성직계(小聲職階, minor orders)가 복잡하게 형성된 서방교회와는 달리 동방교회에서는 이러한 직책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³²

동방교회 전통은 기독교에 입문하는 과정의 단일성을 강조한 반면, 서방교회 라틴 전통 예식은 새 신자들과 주교의 일치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군인교회가 ‘세례 직후 성찬’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면, 간결함과 단일성을 추구하는 동방교회 전통과 공교회의 일치를 강조하는 서방 전통 모두에서 그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군인교회의 ‘세례 직후 성찬’이 ‘정체성 강화’ 측면에서 시행된다면, 천주교의 ‘견진’과 의미상으로는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견진’(堅振)은 세례 받은 신자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성스러운 기름을 바르는 ‘도유’(塗油)로 표현된다. 이것도 서방 전통은 주교가 한 손을 얹고 축성한 성유를 이마에만 바르지만, 동방에서는 이마, 눈, 코, 귀, 입술, 가슴, 등, 손, 발에 바르며 ‘성령의 인치심’을 강조한다.

동방교회 전통을 확립한 이레니우스의 신학은 세례를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접붙여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 몸의 지체

³⁰ Henry van Straelen 외, *Constitutiones Decreta Declarationes Concilii Oecumenici Vaticanani Secundi*, 현석호 역, 『공의회의 역사·공의회 후의 영성과 신학』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3), 225.

³¹ William D. Maxwell,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98.

³²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강근환·민경배·박대인·이영현 엮음·옮김, 『세계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02-103.

로 만드는 것이라면,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 양분을 허락하시는 수단이다. 접붙여진 지체는 몸으로부터 받은 피와 양분에 의해 살아간다.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인은 성찬을 통해 양분을 받는데, 이것은 이레니우스 시대에 - 또한 교회사의 대부분을 통해서 - 기독교의 규범적 예배였다.³³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찬만을 거룩한 예전으로 확정하였다. 예식의 복잡성, 미신성, 우상숭배적 요소를 모두 떨쳐버리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말씀은 강조되었지만 성례는 약화되었다. 그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 군인교회가 ‘건진’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도유’의 상징을 표현할 수 있는 예전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면 면밀한 신학적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세례의 일회성에 대한 신학적 검토도 분명히 다뤄져야 한다.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한다’는 일회성의 근거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렵다.³⁴ 기독교 역사에서 이 문제는 노바티안파와 도나투스파의 분열과 관련되어 있다. 시프리안(Cyprian)은 노바티안(Novatian)과 그의 추종자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냈고, 도나투스(Donatus)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성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프리안과 코르넬리우스(Cornelius)의 후계자인 로마의 스테반(Stephen)은 정확한 삼위일체 정식(正式)으로 행해진 세례는 올바른 세례이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거스틴(Augustine)도 성례의 유효성(efficacy)은 집례자의 부적합성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도나티스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정통관례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된 성례는 타당하며 다시 반복될 필요

³³ Justo L. Gonzalez, *Christian Thought Revisited: Three Types of Theology*, 이후정 역, 『기독교사상사』 (서울: 컨콜디아사, 1991), 87-88.

³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엡 4:5)라는 말씀은 ‘세례의 일회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한 말씀이다.

가 없다고 논증하였다.³⁵ 『군인교회예식서』(2010)에서도 이 일회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며, 물세례는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이다.”³⁶

이 부분에서 물세례의 일회성과 성령세례의 연속성을 설명해 주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³⁷

종교개혁 이후 재세례파(anabaptist, rebaptizer)는 세례의 일회성에 대해 ‘유아세례’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하였다. 이들의 유아세례 무용론은 의지적인 신앙고백을 통해서 받은 세례만이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이르렀다. 급진적 종교개혁자들(Radical reformers)은 온건적(정치권력·행정부 안에서의) 종교개혁자들(Magisterial reformers)과 대조되는 논쟁점이 있었다. 첫째는 유아들이 새 언약의 근거를 따르며 세례 받았는가의 문제였고, 둘째는 언약적 표징과 행위(할례와 세례)가 예전에 베풀어졌던 것보다 새로운 것으로 베풀어져야만 하는

³⁵ Frances M. Young, *The Making of the Creeds*, 이후정·홍삼열 역, 『초대 기독교 신조 형성사』 (서울: 컨콜디아사, 1994), 101-105.

³⁶ 한국군종목사단 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발행, 『군인교회예식서』 (서울: 쿰란출판사, 2010), 22.

³⁷ 토레이는 “‘성령 충만’(행 2:4)이라는 말과 ‘성령세례’(행 1:5)라는 말은 동일한 체험을 가리키지만, ‘성령세례’라는 표현을 첫 번째 체험에만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령세례는 한 번이고 성령 충만은 여러 번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Reuben Archer Torrey, *The Pers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 이용복 역, 『성령세례 받는 법』 (서울: 규장, 2006), 116.

가의 문제였으며, 셋째는 세례가 순수한 간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개인적인 구속인지, 교회의 법적인 구속력인지, 아니면 이 원리들이 둘이나 셋으로 조합된 것인가의 문제였다.³⁸

진중세례가 기독교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례의 일회성’에 대한 철저한 강조와 함께 세례 신자의 진정한 신앙고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재세례파의 후예로서 아직도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진지하게 이어가고 있는 메노나이트(Mennonites/Amish)의 성인 세례식은 진중세례의 긴박성과 시급함에 대해 진중한 생각을 안겨준다. 그들은 자각적인 결정력을 갖춘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의 확고한 의사에 따라 신앙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의식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에게 세례식은 죄악을 씻는 ‘정결의식’ 일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 스스로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평생 아미쉬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서약의식’이기도 하다. 이들은 세례와 동시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아미쉬의 규범 앞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까지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진지하게 실천한다.

아미쉬들은 자녀들이 세례 받고 그들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는다. 세례 받기 전에 공동체 바깥의 세상을 경험하고, 아미쉬 공동체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바깥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세례 받기에 앞서 세례 예비자들은 아미쉬 공동체의 기본 신앙고백서(Doderecht Coffession of Faith)를 바탕으로 세례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이 끝나갈 즈음 세례 예비자들은 최종 결정 전에 세례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은 이들의 동의를 묻는 절차를 거쳐 세례가 베풀어진다. 이런 진지한 결단과 고백이

³⁸ George H. Williams, *The Radical Reform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302.

아미쉬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바깥 세상과 차별되면서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³⁹

3.2. 군인교회 성례전 모델 개발

앞서 언급된 세례 직후 성찬을 현재 시행하는 부대의 군인교회가 바람직한 성례전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학자, 군종목사(민간 목회자), 후원기관이 연합하여 군선교 현장에 걸맞은 성례전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성례전을 통한 영혼의 거둢과 성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역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규모 인원 에 대한 세례식과 성찬식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육군훈련소의 경우에는 성찬식 준비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되고 점검되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고 있다. 2010년 7월 4일 대구 순복음교회(이건호 목사 담임)에서 실시한 성찬식은 대규모 세례 인원(2,900명)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이 성례에는 집례자와 보좌 인원이 무려 100명 이상 참여했고, 특히 성찬식을 위해서는 대구 순복음교회의 훈련된 봉사자들이 세례식 전날 미리 훈련소 연무대교회를 찾아 숙식하며 세례식과 함께 성찬식을 준비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다른 후원교회와의 세례식에서는 성찬식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훈련소 연무대교회의 자원과 예산만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례 직후 성찬’에 참여한 장병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정확하게 통계자료로 확보되어야 한다. 세례와 함께 성찬에 참여한 느낌과 반응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성례가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³⁹ Donald Kraybill, Steven Nolt, David Weaver-Zercher, *Amish Grace*, 김재일 역, 『아미쉬 그레이스』 (서울: 뉴스앤조이, 2009), 78-102.

의 정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육군 21사단(권오민 군종목사 담임)의 경우,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 시행하기 위해서 열 명 정도의 별도 집례자가 확보되어 있으며, 세례 직후 성찬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군인교회예식서』(2010)를 발간한 것은 군인교회에서 성례전을 선교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 예식서가 군종목사들과 민간 목회자를 통해 충분히 활용되고, 현장의 적용사례가 다양하게 종합되고 제시되는 일을 위해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실제로 예문을 적용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움직임’을 상상력 동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성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모델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기에 신학자, 현장 사역자,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작업을 거쳐 실현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해 준다면 귀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단급 성례전 모델로 ① 신교대 장병 성례, ② 사단교회 절기 성례, ③ 훈련장·병원 위문 성례, ④ 전시(긴급상황) 간편 성례, ⑤ 온전한 성례(넉넉한 시간용) 등으로 구분하여 군종목사나 민간 목회자가 집례하고, 군종병이나 군인교회 헌신자가 보좌하는 형태로 모델을 제시하면 상당한 반응이 나오리라 기대된다. 그런 반응들을 수시로 종합하여 다시 신학적 연구와 검토를 거치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면 군선교 현장의 성례전 문화는 한층 그 수준이 높아지리라 확신한다.

군종목사로서 군선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민간 후원교회의 도움을 받더라도 성례전 모델 개발은 굉장히 긴박하게 다뤄져야 한다. 군선교 현장의 변화가 급격하게 달

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현장 적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꾸준히 시행하고 그 반응을 분석·종합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인교회예식서』(2010)에서는 “세례 집례 후 성찬식이 이어질 경우, 세례 공포 후 성찬식을 연이어 진행하고 축도로 마친다”⁴⁰라고 되어 있다. 예식서의 예문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세례 직후 성찬’과 같은 중요한 예전은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 안내와 설명이 필요하다. 현장 상황에 맞게 집례자가 알아서 진행하라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예식서의 내용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군종목사로서 세례 직후 성찬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의 문제는 굉장한 예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그 매끄러운 집례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교회 실정에 적합한 예배 모델도 성례와 더불어 생각해야 한다. 전체 예배의 틀 안에서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이머징 교회의 예배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현재 예배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교만해서 저지르는 실수일 것이다. 나는 결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¹라는 댄 김볼(Dan Kimball)의 말은 군선교 현장에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유일하게 옳은 예배는 없지만, 예배를 드리는 데 효율

⁴⁰ 한국군종목사단 편, 『군인교회예식서』, 22.

⁴¹ Dan Kimball, *The Emerging Worship*, 주승중 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서울: 이레서원, 2008), 37.

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은 있다. 효율적인 예배는 변화의 은혜(transforming grace)를 전달하지만 비효율적인 예배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⁴²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신앙과 직제 위원회’에서 채택한 “세례 · 성만찬 · 교역(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에 관한 ‘리마 문서’ (Lima Documents)에는 최초로 베풀어졌던 역사적인 세계교회의 ‘공동 성만찬 예식서’, ‘리마 예식서’ (Lima Liturgy)가 들어 있다.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언제나 기념(memorial), 임재(real presence), 그리고 희생(sacrifice)의 세 단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리마 예식서에서는 ‘개회의 예전’, ‘말씀의 예전’, 그리고 ‘성만찬의 예전’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소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⁴³ 성례전 모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리마 예식서는 좋은 모델로 연구 가치가 높지만(『군인교회예식서』(2010)에도 리마 예식서의 예문이 상당 분량 반영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① 혼합주의의 산물, ② 천주교 미사 의식이 둔갑한 것, ③ 그 기초가 혼합적인 성만찬 신학(화체설 수용, 희생제사설 수용, 신학적 의미보다 의식에 치중)이라고 비판하면서 WCC의 예배갱신운동 자체를 중세 가톨릭적인 의식주의로의 복귀로 보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⁴⁴

세례식의 일회성과 함께 성찬식의 연속성을 군인교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예배 가운데 성례를 복원하는 것이다. 군인교회에서도 예배는 매주일 빠짐없이 드리기 때문이다. 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성례

의 의미와 체험을 장병들에게 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성례 적용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와 동떨어진 성례전 모델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성례전 모델 개발이 군선교 현장에 도입되어야 한다. 이것 역시 다양한 현장 유형별로 분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례부터 분석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세례 직후 성찬은 아니지만 세례식(토요일)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예배 가운데 시행함으로써 세례 신자의 소속감을 확인시켜 주는 군인교회도 현재 있으며, 성찬식을 주기적으로 예배 가운데 시행하는 군인교회도 있기에 거기서부터 모델화를 시도하면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3.3. 선교적 패러다임 전환

군선교 현장도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선교적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최근 군선교 현장의 최대 현안은 무종교 인원 증가이다. ‘1인 1종교 갖기’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지만 소수종교 인정과 종교 선택의 자유는 종교가 없는 장병들의 숫자를 늘리고 있다.

동방정교회 예배는 교회가 삶의 중심으로서 신자들의 모든 삶을 결정한다. 예전은 이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킨다. 변화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일상적 삶에서 선포하고 증언해야 한다. 이러한 삶이 선교로서 “예전 이후의 예전”(the liturgy after Liturgy)인 것이다. 이러한 성례전적, 내향적, 구심적 선교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세상이 성찬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선교가 그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정교회의 예배 예전적 선교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적 동력화를 확보할 수 있는가?⁴⁵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난 뒤, 네덜

⁴² Andy Langford, *Transitions in Worship*, 전병식 역, 『예배를 확 바꿔라』(서울: KMC, 2005), 125.

⁴³ 박근원 편저, 『리마예식서』(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1), 9-53.

⁴⁴ 유선호, 『리마 예식서의 정체』(서울: 하늘기회, 2002), 42-80.

⁴⁵ 한국선교신학회 엮음, 『선교학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253-254.

란드 정부와 문화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쇠락하게 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카이퍼주의 내부에서 ‘추정적 거듭남’ (presumptive regeneration, 자녀가 거듭났다는 추정에 근거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사상)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이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회심, 극적인 회심, 성경적 보증이 확실한 회심이 아니라 추정적 거듭남을 믿고 세례를 주었을 때 기독교는 힘을 잃고 세속화되었던 것이다.⁴⁶

위대한 사상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나 기독교인들이 네덜란드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원인으로 진정한 회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지적한 카슨(D. A. Carson)의 분석은 군선교 현장에도 굉장한 울림을 준다. ‘추정적 거듭남’과 견줄 수 있는 ‘무확인 세례’가 군선교 현장에서 배풀어지는 한, 군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신자는 군선교를 통해 배출되지 않을 것이다.

리처드 백스터는 회심을 이렇게 설명한다.

“회심은 마음을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생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생활이 결정적으로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⁴⁷

이런 회심이 세례 자체만으로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세례를 통한 회심의 가치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군선교 현장의 진중세례가 과연 이런 회심에 대해 얼마나 ‘진중’ (珍重)하게 돌아보고 있는지 신학

⁴⁶ D. A. Carson, *Christ and Culture Revisited*, 김은홍 역, 『교회와 문화, 그 위태로운 관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59-360.

⁴⁷ Richard Baxter, *A Call to the Unconverted*, 백금산 역, 『회심』 (서울: 지평서원, 2005), 97-98.

자, 현장 사역자, 후원기관 모두가 살펴야 한다.

거짓 회심의 모습을 지적한 켄트 필포트(Kent Philpott)은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이다.

“어떤 교파나 교단에서 세례를 받아 소속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분명하다. 각종 의식들, 사제의 선포, 성수(聖水), 또는 예전적(禮典的) 절차는 결코 구원을 줄 수 없다.”⁴⁸

‘세례→개종’의 선교적 틀이 ‘세례→회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왜냐하면 무종교인의 증가는 세례신자가 기독교인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세례 이후에도 다른 종교로의 개종이 가능하다는 점(군선교 현장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과 자신의 종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젊은 장병들의 종교관은 개종보다 회심에 초점을 맞춰 선교할 시점이 다가왔음을 알려준다. 군선교의 성례가 ‘개종’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면 이미 선교 전략적인 실패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세례 받고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이들을 군인교회에서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진적인 회심보다 점진적인 회심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세례의 일회성이 급진적인 회심을 기대한다면, 성찬의 연속성은 점진적인 회심을 바라볼 수 있다. 세례와 성찬이 거룩한 예전으로 정리된 기독교 전통에서는 세례를 통한 급진적인 회심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한 점진적인 회심도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물론 성찬을 통해 급진적인 회심이 일어날 가능성과 세례를 통해 급진적인 회심이

⁴⁸ Kent Philpott, *Are You Really Born Again?*, 이윤복 역, 『진실로 회심했는가』 (서울: 규장, 2009), 144.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동안 세례를 개종의 방편으로 생각한 선교방식에서 진정한 회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룩한 예식에 성찬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그리 새로운 것도 없는 기독교 전통의 방식이다. 그러나 성례를 통한 회심의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군선교와 한국교회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군인교회에서 일회성 세례가 꾸준히 시행되는 것만큼 성찬도 그 자리를 찾는다면 군선교 현장은 확실한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IV. 결론

군종목사로서 군선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성례전에 대한 고민을 여가서 나누고자 했다. 신학적 검증과 연구에 있어서 전문적인 신학자가 더욱 진지한 연구로 현장 사역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신학적 연구의 자리와 군선교 현장 사이의 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좁혀져야만 한다.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이 “엄청난 누락”(Great Omission)이나 “거대한 괴리”(Great Disparity)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고 서명하는 세례인을 만든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수의 보혈만 쫓아 빨아먹고 구원의 증표만 받아 챙긴 다음, 그분의 성품을 닮아 갈 마음이 전혀 없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현상이 군인교회에서는 안 된다.⁴⁹

군선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례전 모델은 그 다양함 속에서 일치

와 연합의 모습으로 꾸준히 발전되어야 한다. 성례는 실천의 영역이다. 마네킹에 입혀진 옷으로는 내 맴시를 다듬을 수 없는 것처럼 다양한 모델이 있어도 현장에서 일단 적용해 보는 시도와 도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크기를 골라잡고 내 몸을 옷에 맞추려는 시도는 어리석다. 그러나 적당한 크기를 골라 내 몸에 입어 보려는 시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직 군선교 현장에 맞는 성례전 모델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역사는 실천하는 자들에 의해 변화되었고, 모델은 절대성이 가장 위험한 적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세례와 성찬을 베풀다 보면 성령께서 군선교 현장을 조명해 주시리라 믿는다.

⁴⁹ Dallas Willard, *The Great Omission*, 『잊혀진 제자도』 (서울: 복있는사람, 2009), 9-39.